이투데이

ECONOMY TODAY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etoday.co.kr

제2523호

대표전화 : 02)799-2600 / 구독 : 02)799-2684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BanK!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축구 전설' 마라도나 심장마비로 별세 25

정만기 산업연합포럼 초대회장 "산업계 현안 공론화"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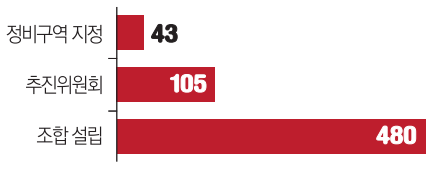
▲ 코스피(26일) 2625.91(+24.37P)	▲ 코스닥 874.53(+9.41P)
▼ 환율(달러당 원화) 1104.60(-4.30원)	▲ 금리(국고채 3년물) 0.981%(+0.010%P)

재건축 조합 속속 설립 규제가 부른 집값 급등

〈2년 실거주 의무〉

조합원 분양요건 내년부터 강화
압구정 단지들도 조합설립 눈앞
"전세난에도 악영향 초래" 우려

서울시내 재건축 현황 (단위 : 곳)



이르면 내년부터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강화된다. 단지마다 이를 피하기 위한 속도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4일 재건축 조합원의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사업장에선 분양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에 2년 이상 거주한 소유주에게만 조합원 입주권을 주도록 했다. 거주 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소유주는 현금 청산(재건축으로 사라지는 주택에 대한 보상을 받고 조합원 지위를 포기하는 것)만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5면

여권은 재건축 아파트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 투자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 과열을 막는다는 명분 아래 이 같은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업계는 늦어도 내년 봄에는 조합원 분양 요건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거주 요건 강화를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부터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조합 설립이 늦어지면 외부 투자자들이 입주권을 못 받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75%를 잇따라 채운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재건축으로 재산 가치가 올라갈 것이란 기대감에서다. 올봄만 해도 33억~34억 원대이던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전용면적 152㎡형은 현재 45억 원을 호가한다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 전세시장에도 적잖은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실거주 강화 규제가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불난 전세시장에 기름을 붓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CSR 필름페스티벌…"사회적 책임 확산" 이투데이가 주최한 '2020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이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9회째 열린 행사는 '사회가치 경영'이란 기업 비즈니스모델 혁신과 '기업시민 의식제고'를 목표로 한 대한민국 대표 CSR 축제다. 상생경제부문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한 '핸드스피크'가 뮤지컬 영웅의 '누가 죄인인가'를 수어로 공연하고 있다. ▶관련기사 8·9면

고이란 기자 photoeran@

LG, 상사·하우시스 등 5개社 분리시킨다

내년 5월 2개 지주사로 재편 출범
LG U+ 하현회 용퇴…황현식 내정
롯데, 신임 식품BU장에 이영구 대표

LG그룹과 롯데그룹을 시작으로 주요 재계 연말 인사가 본격화했다. LG그룹과 롯데그룹은 26일 조직개편 및 인사안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2·3·16면

LG그룹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LG상사, 실리콘웍스, LG하우시스, LG MMA 등 4개 자회사 출자 부문을 분할해 신규 지주회사인 '㈜LG신설지주(가칭)'를 설립하는 분할계획을 결의했다.

'㈜LG신설지주'는 새로운 이사진에 의한 독립경영 체제로 운영한다. LG는 내년 3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분할 승인 절차를 거치면, 5월 1일 자로 존속회사 ㈜LG와 신설회사 '㈜LG신설지주(가칭)'의 2개 지주회사로 재편돼 출범한다.

LG는 177명의 승진 인사와 4명의 CEO(최고경영자) 및 사업본부장급 최고경영진을 새로이 선임하는 등 총 181명 규모의 임원인사를 확정했다.

LG유플러스 신임 CEO에는 황현식 컨슈머사업총괄 사장이 내정됐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문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에는 김종현 전지사업본부장 사장이 신임 대표 이사로 내정됐다. 36년간 LG에 몸담았던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은 내년 3월 임기를 만료하고 용퇴한다. 하 부회장은 LG신설지주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LG의 권영수 부회장과 LG생활건강 차석용 부회장, LG화학 신학철 부회장 등은 유임됐다.

롯데그룹도 이날 롯데지주와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등 계열사 이사회를 열어 식품BU장과 13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교체하는 등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롯데그룹의 신임 식품BU장에는 이영구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가 사장으로 승진했다. 롯데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롯데지주에서는 커뮤니케이션실장에 롯데건설 고수찬 부사장이 승진 임명됐다. 준법경영실장에는 검사 출신인 박은재 변호사가 부사장 직급으로 영입됐다.

권태성 기자 tskwon@
남주현 기자 jooh@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확진자 600명 육박…3월이후 최대

세계 누적 6000만명 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환자가 7개월여 만에 500명을 넘어섰다. 3월 1차 대유행 수준의 확산세다. ▶관련기사 4·12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83명 증가한 3만231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1차 대유행이 번졌던 3월 3일(600명) 이후 최대치다. 수도권 확진자(402명)는 코로나19가 국내에 유입된 2월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한편 25일 오후 11시(현지시간) 기준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6000만명을 넘어섰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秋 징계청구 사항, 중징계 사유 안돼" 소송

윤석열 '반격'…고·지검장도 가세

尹, 효력 집행정지 신청 제기
秋, 징계심의 내달 2일 열기로

평검사 "징계 청구 위법·부당"
7년 만에 '검란' 현실화 촉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추 장관을 상대로 "재고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전국 10여 곳의 일선청 평검사들은 이번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고검장들까지 가세하면서 '검란'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추 장관 발표 이틀 만에 소송=윤 총장이 본안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이에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회동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재판부에 대한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등 감찰·수사 방해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위반·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 등의 혐의를 근거로 직무배제와 징계청구를 했다.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적극 대응하고 있다.

윤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추 장관이 징계청구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해임 수준의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를 모두 부인했다. 특히 추 장관이 제기한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라며 "공판업무와 관련한 용도의 범위에 있는 문건으로 자료 수집은 대부분 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이고 일부 공판검사들에게 물어본 내용이 전부"라고 일축했다.

윤 총장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두 변호사에게 징계위원회를 위한 특별 변호인 역할도 맡긴 상태다.

◇징계 청구한 추미애는 심의 빠져=법무부는 "추 장관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심의 기일을 12월 2일로 정하고 징계혐의자인 윤 총장 또는 특별 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이번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해임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돼 있다.

◇7년 만의 평검사 회의, 고검장까지 가세=검찰 내부에서는 7년 만에 전국단위 평검사 회의가 소집되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 등이 회의를 거쳐 의견을 낸 데 이어 26일 서울·광주·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평검사 회의가 개최됐다. 평검사들은 회의 종료 후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를 철회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고검장·지검장·지청장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가세했다. 조상철 서울고검 검사장 등 17명과 고진원 속초지청장 외 14명은 "윤 총장의 직무 정지를 재고해 달라"고 성명을 냈다. 정수천 기자 int1000@

법무부, 대검에 尹총장 '판사 사찰' 수사 의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이라며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6일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판사 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판사 사찰문건에서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이라고 기재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며 "법적 권한 없는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고, 그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영 기자 pgy@

이영구 식품BU장 사장 | 박윤기 롯데칠성 대표 | 이진성 롯데푸드 대표 | 임병연 미래전략연구소 대표

50대 초 CEO 전진 배치 辛의 한수는 '젊은 롯데'

계열사 정기임원 인사

세대 교체로 신성장동력 발굴
직급체계 축소 등 체질 개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주도한 이번 정기임원 인사 키워드는 '세대 교체'와 '군살 빼기'로 요약된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룹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신 회장이 비상 경영에 알맞은 몸집을 갖추고 그룹 체질을 개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롯데의 '재설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롯데 인사의 첫 번째 키워드는 '젊은 롯데'다. 롯데그룹은 코로나19 이후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만큼 젊은 감각으로 혁신을 꾀할 수 있는 50대 초반의 젊은 CEO를 대거 선임했다.

'젊은 롯데'로의 변화에 발맞춰 이영구(58)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가 사장으로 승진하며 신임 식품BU장을 맡게 됐다.

계열사 CEO들도 50대 초반으로 대폭 물갈이됐다. 롯데칠성음료의 신임 대표이사는 박윤기(50) 경영전략부문장이 전무로 승진하며 내정됐다. 롯데네슬레 대표이사였던 강성현(50) 전무는 롯데마트 사업부장(대표)을 맡게 됐다. 롯데푸드 대표이사에는 롯데미래전략연구소장을 지낸 이진성(51) 부사장이,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대표이사에는 LC USA 대표이사였던 황진구(52) 부사장이 승진 내정됐다.

롯데그룹은 조직 군살 빼기를 통해 전반적인 체질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롯데그룹은 이번 인사에서 50명의 신규 임원을 선임했는데, 이는 지난해(64명)에 비해 20% 줄어든 수치다.

직급 체계도 손봤다. 임원 직급단계를 기존 6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직급별 승진 연한도 축소 또는 폐지했다. 젊고 우수한 인재들을 조기에 CEO로 배치하기 위한 조치라고 그룹은 설명했다.

다만 여성 임원 발탁 기조는 유지됐다. 롯데그룹은 이날 인사에서 지난해보다 1명 많은 여성 임원 4명을 신규 선임했다.

롯데그룹의 화학 계열사 인사도 주목거리다.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대표를 맡았던 임병연 부사장이 롯데미래전략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롯데미래전략연구소는 롯데그룹의 미래 사업 방향의 밑그림을 그리는 곳으로 평가되는 만큼 임 대표의 보임이 향후 화학 계열사에 힘을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전자·화학·통신’ 집중… 구광모號 ‘뉴LG 구축’ 속도

‘장자승계’ 마지막 퍼즐 맞춰

실리콘웍스·MMA 등 ‘계열 분리’
구본준, 새 지주사 설립 독립경영
인적분할 비율 순자산 기준 ‘9:1’
지배구조 단순화 기업경쟁력 강화

LG그룹이 LG상사, LG하우시스 등 5개사 중심의 신규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구본준 LG 고문이 신규 지주회사를 이끌면서 홀로서기가 본격화됐다.

LG는 2018년 구광모 회장 취임 후 사업 포트폴리오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연료전지, 수처리, LCD(액정표시장치) 편광판 등 비핵심 사업은 매각 등 축소하는 한편, 배터리, 대형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자동차 전장 등 성장동력을 강화해 왔다. 이번 분할이 완료되면 3년간의 사업구조 재편 작업이 일단락될 전망이다.

㈜LG는 26일 이사회를 열고 ㈜LG의 13개 자회사 출자 부문 가운데 LG상사, 실리콘웍스, LG하우시스, LG MMA 등 4개 자회사 출자 부문을 분할해 신규 지주회사인 ‘㈜LG신설지주(가칭)’를 설립하는 분할계획을 결의했다.

‘㈜LG신설지주(가칭)’가 이들 4개 회사를 자회사로, LG상사 산하의 판토스 등을 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이다.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로 구본준 LG 고문(대표이사), 송치호 LG상사 고문(대표이사), 박장수 ㈜LG 재경팀 전무를 내정했다. 사외이사는 김경석 전 유리자산운용 대표이사,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정순원 전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강대형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를 내정했다. 또, 김경석, 이지순, 정순원 사외이사 내정자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LG는 내년 3월 26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사분할 승인 절차를 거치면, 5월 1일 자로 존속회사 ㈜LG와 신설회사 ‘㈜LG신설지주(가칭)’의 2개 지주회사로 재편돼 출범할 예정이다.

이번 분할은 존속 및 신설 지주회사 모두 현재의 지주회사 및 상장회사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LG의 자회사 출자 부문 가운데 상장 자회사인 LG상사, 실리콘웍스, LG하우시스 및 비상장 자회사인 LG MMA 출자 부문을 인적분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분할비율은 존속 및 신설 지주회사의 별도 재무제표상 순자산 장부가액 기준에 따른 것으로 ㈜LG 0.912, 신설 지주회사는 0.088이다.

분할 이후 존속회사 ㈜LG는 전자화학 통신서비스 영역에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고, 신설 지주회사는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업회사들을 주력기업으로 육성해 각각의 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의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존속회사 ㈜LG는 핵심사업인 전자(가전,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장), 화학(석유화학, 배터리, 바이오), 통신서비스(5G, IT)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신설 지주회사 산하의 자원개발 및 인프라(LG상사), 물류(판토스), 시스템반도체 설계(실리콘웍스), 건축자재(LG하우시스) 및 기초소재(LG MMA) 사업은 해당 산업 내 경쟁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높다. 이번 분할을 계기로 외부 사업 확대 및 다양한 사업기회 발굴을 통해 주력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신설 지주회사는 산하 사업회사들의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신사업 및 M&A 기회를 모색하고, 기업공개 등 외부 자본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LG그룹은 장남이 그룹 경영을 이어받고, 동생들이 계열사를 분리해 나가는 ‘형제 독립 경영’ 체제 전통을 이어왔다. 구 고문은 고(故)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며, 고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이다. 구광모 LG 회장이 2018년 취임하면서 계열 분리 시나리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LG그룹은 계열 분리에도 불구하고 재계 순위 4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LG그룹 계열 회사는 총 70개이며, 자산총액은 약 136조9000억 원이다. LG상사, LG하우시스와 이들 기업에 딸린 자회사만 계열 분리해도 60개 회사, 약 131조 원의 자산이 남는다. 분할 후 존속회사 ㈜LG는 자산 9조7798억 원이 된다. 신설 지주회사는 자산 9133억 원, 자본 9108억 원, 부채 25억 원, 부채비율 0.3%의 재무구조를 유지하게 된다.

권태성 기자 tskwon@

LG그룹 계열분리 · 분사

	분리 · 분사 회사명	주업종
LG그룹	LG상사	제조, 도소매서비스, 건설, 부동산
	판토스	복합운송주선업
	LG하우시스	건축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실리콘웍스	평판디스플레이 시스템 IC 설계 및 제조
	LG MMA	화학 소재 제조사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사업부문 자회사

LG그룹 계열 분리 역사

	그룹	창업 오너	비고
1996년	희성(희성금속 등)	구본능 회장	창업주 손자
1999년	LIG(LG화재)	구자원 회장 등	창업주 조카
2000년	아워홈(LG유통 식품부문)	구자학 회장	창업주 3남
	LB인베스트먼트(LG창업투자)	구자두 회장	창업주 4남
2003년	LS(LS전선 · 산전 · 칼텍스가스 등)	구태회 · 구평회 · 구두회 회장	창업주 동생
2004년	GS(LG칼텍스정유 · 유통 · 건설 등)	허창수 회장	동업자
2006년	LF(LG패션)	구본걸 회장	창업주 손자
2020년	LG상사 · 하우시스	구본준 고문	창업주 손자

성과중심 인재 중용… 미래성장 가속

에너지솔루션 대표 ‘배터리맨’ 김종현 LGU+ 수장엔 ‘첫 내부승진’ 황현식

LG 임원인사의 가장 큰 특징은 124명의 신규 임원 승진 등 젊은 인재를 대거 발탁, 전진 배치해 미래 준비를 위한 성장사업 추진을 가속토록 한 것이다.

올해 LG는 177명의 승진 인사와 함께 4명의 CEO(최고경영자) 및 사업본부장급 최고경영진을 새로 선임하는 등 총 181명 규모의 임원인사를 확정했다.

연말 임원인사 외에도 연중 23명의 외부 인재를 임원으로 영입하는 등 나이, 성별, 경력과 관계없이 성장 잠재력과 분야별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를 중용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LG는 미래 준비를 위해 지난해(106명)보다 많은 124명의 상무를 신규 선임했다. 이 중 45세 이하 신규 임원은 24명으로, 지난 2년간 각각 21명에 이어 증가하고 있다.

큰 관심을 모았던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문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 새 수장에는 김종현 전지사업본부장 사장이 신임 대표 이사로 내정됐다.

김 사장은 LG화학 소형전지사업부장(전무), 자동차전지사업부장(부사장), 전지사업본부장(사장) 등 전지 부문 주요 직책을 경험하며 배터리 사업을 주도해왔다. 특히 2018년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을 맡은 이후 전지 사업을 명실상부한 세계 1위 배터리 기업으로 올려놨다.

김 사장은 배터리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수주를 끌어내는 데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현회 부회장의 용퇴로 자리가 빈 LG유플러스 신임 CEO에는 황현식 컨슈머사업총괄 사장이 선임됐다. LG유플러스에서 CEO로 내부 승진한 첫 사례다.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대표

황현식 LGU+ 대표

황 신임 사장은 1999년 LG텔레콤에 입사해 강남사업부장, 영업전략담당 등을 경험했다. 그 뒤 LG 통신서비스팀을 거쳐 2014년 다시 LG유플러스에 합류해 모바일 사업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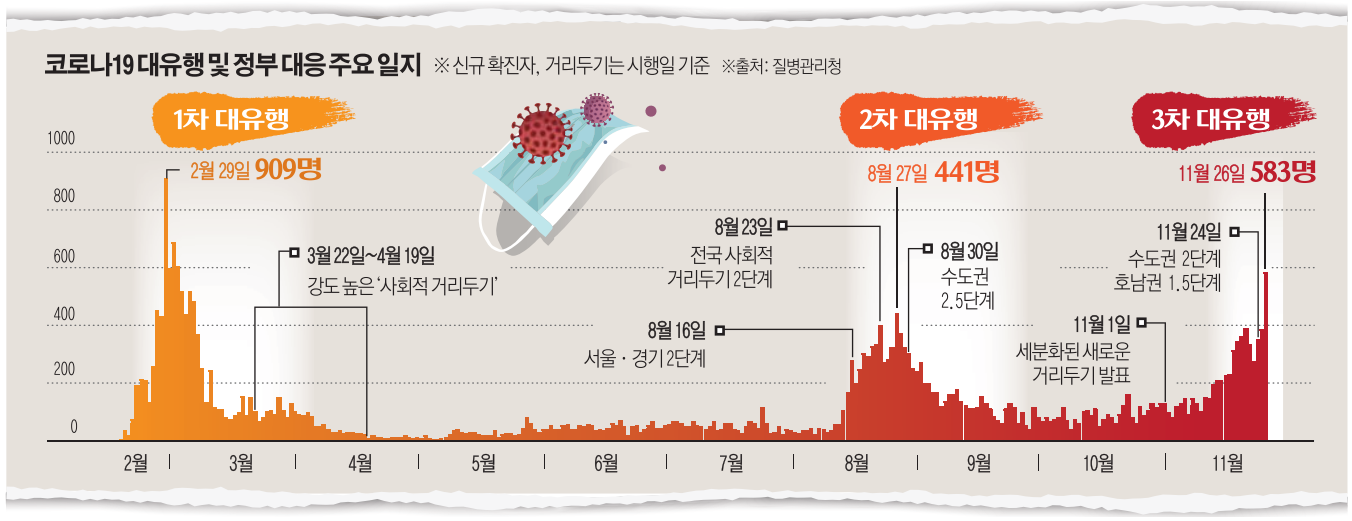
CEO 및 사업본부장급 최고경영진은 4명이 교체됐다. LG전자 이상규 한국영업본부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한국영업본부에서 영업, 전략, 유통, 마케팅 등 다양한 직무 경험을 쌓았다. 실리콘웍스 CEO 손보익 사장은 시스템 반도체 전문가로 2017년부터 실리콘웍스 CEO를 맡아 사업의 외연을 확장하고 디지털 반도체 사업 진입을 꾸준히 추진해 두 배 가까운 사업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장 손지웅 사장은 의학·제약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바이오 전문가로 2017년 LG화학 생명과학사업본부장으로 선임돼 사업 수익성 개선 및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 등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강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권태성 기자 tskwon@

일상이 감염경로… "누가 확진돼도 이상할 것 없어"

軍·학원 등 전국 곳곳 집단감염
20~30대 환자 비중 30% 육박
내주까지 확진 증가세 이어질 듯
치료병상 부족 현실화 가능성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응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일일 확진자가 600명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은 가운데, 이런 확산세가 적어도 내주까진 이어질 전망이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최근 사례를 보면 아파트 사우나에서 시작된 연쇄감염이 100명을 넘어섰고, 에어로빅 학원과 군 훈련소에서는 하루 이틀 사이 50명이 넘는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며 "20~30대 감염자 비중은 한 달 새 28%까지 증가했고,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젊은 중환자 수도 19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생활 어느 곳에서나 남녀노소 누구든 감염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현 상황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번졌던 1차 대유행(3월), 수도권 종교시설과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를 중심으로 번졌던 2차 대유행(8월)보다 심각하다. 다양한 시설·집단에서 유입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고, 확진자 중 상당수가 외부활동이 활발한 20~30대여서다. 수도권의 인구밀도가 높고, 지역 간 이동이 빈번한 점도 위험요소다.

특히 광주 상무지구, 인천 연수구, 경남 창원시에선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유흥업소발 확산은 확진자·접촉자들이 동선 공개나 자발적 진단검사를 꺼려 감염경로나 추가 접촉자 추적이 어렵다. 따라서 선행 확진자의 접촉자를 통해 감염되는 경우, 본인이 감염됐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추가 전파를 일으킬 위험이 크다.

이런 상황은 역학조사 등 방역대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조용한 전파가 지속하는 경우에 접촉자·환자들의 동선을 추적·관리하면서 이것을 다 억제한다는 건 대응팀을 (인원을) 늘린다고 해도 바이러스 전파 속도를 따라잡기 어렵다"며 "의심증상이 있을 때 진단검사 받기,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취소, 생활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자발적 참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12월 초까지 400~600명대 확진자 증가가 이어지고, 이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로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만약 내주 주말까지 확산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 방문판매 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은 영업이 금지된다. PC방과 학원, 독서실, 영화관, 오락실, 사우나 등 일반관리시설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방역당국은 우선 2단계 적용 후 발생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대본 백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하게 전파되고 전국으로 번져나간다는 상황인식은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수도권 2.5단계 격상 기준은 신규 확진자가 400~500명 계속 나오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라서 오늘 (확진자가 500명을 넘었다고) 격상을 말하는 것은 기준상 맞지 않고, 또 2단계 격상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전에는 이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현재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시와 하동군이다.

병상은 24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926개를 활용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가용 병상은 서울 358개, 인천 297개, 경기 271개 등 926개다. 지금과 같은 확산세가 이어지면 다음 주 병상 부족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도 157개 중 77개가 남아 있지만, 젊은 층 위주의 확산이 취약시설 전파로 이어지면 이 역시 포화가 우려된다.

이상원 단장은 "(경증의) 확진자들을 같은 데 격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빠르게 환자가 불편을 호소할 수 있고 진료를 받는 의료 프로세스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며 "너무 늦지는 않게 (구체적인 절차나 내용이)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붐비는 선별진료소·썰렁한 홍대거리 26일 서울 동작구청 광장에 마련된 워킹스루형 현장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동작구는 지역 내 동시다발적인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7일까지 동작구청 광장에 워킹스루형 현장 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왼쪽). 한편 젊은이들로 붐비던 마포구 홍대거리는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제공 동작구·연합뉴스

배민·요기요 등 배달 앱서 소비쿠폰 사용 가능해진다

홍남기 "비대면 사용 전환 검토
방역단계 완화 때 지급 재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획재정부

정부가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 적용 대상에 배달 앱(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에 대응해 비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내수 소비를 떠받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소비쿠폰 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 시 지급을 재개하도록 사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수반되는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향후 경기 회복세가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김용범 경제 중대본 대변인(기재부 1차관)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앞으로 높은 경각심을 갖고 속보지표 등 관련 동향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면서 각 경제 분야별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방역조치에 발맞춰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내수와 관련해서는 방역 우려를 완화하면서도 소비 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동행세일,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이어 내수진작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주자인 크리스마스 마켓(12월 19~27일)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용 분야에서는 남아있는 직접일자리사업, 취약계층 긴급생계·구직지원금 등을 착실히 집행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약 103만 개의 직접일자리사업도 사전 준비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전반적으로 2021년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 경기대책 추진, 직접일자리 예산 등이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이 법정 기한(12월 2일) 내에 반드시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이날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향후 코로나19 확산에 기존 예산으로 대응할지, 5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지금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 상황 전개를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6개월 연장

경제중대본 리스크 대응반 회의
2월 이후 소득 감소 증명해야 혜택

코로나19 사태로 연체 위기에 빠진 개인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26일 '제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 연장안을 결정했다.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 사태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담보나 보증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을 기준으로 가계생계비를 차감한 월 소득이 내야 할 채무보다 적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3개 이상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이 거절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올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우선 증명해야 한다. 가계대출 중에는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을 비롯해 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 등이 해당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특례를 통해 개인 채무자는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다만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나 감면은 없다. 대신 수수료나 가산이자 등의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를 상대로 상반기(2월~6월)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권유했다. 만약 금융사가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연체채권을 매각할 경우 캠코에 매각한다.

이번 조치는 전국 3700여개 금융권이 참여한다. 개인 채무자는 대출받은 금융사에 문의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채무자는 처리 기간(통상 5영업일)을 고려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을 해야 한다.

곽진산 기자 jinsan@

'조합설립 속도' 압구정·개포동 아파트값 신고가 행진

실거주 의무 강화 발표 후 주요 재건축 단지 동향

지역	단지명	내용	가구 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 5단지	10.24 조합설립총회	940
	주공 6·7단지	11.28 조합설립총회	1960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1~6구역 가운데 6구역 뺀 1~5구역 재건축에 필요한 조합원 동의율(75%) 달성	9784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2차	11.16 조합설립인가	157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70%대 주민 동의율 확보	866
경기 과천시 부림동	주공 8·9단지	다음 달 조합설립총회 예정	2120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 강화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을 할 땐 분양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거주한 소유주에게만 조합원 입주 권 부여
- 거주 기간 채우지 못한 조합원은 분양 없이 감정평가액대로 조합원 지위 현금청산
-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부정하게 입주권 받았을 땐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거쳐 공포 후 3개월째부터 시행

실거주 의무 강화로 조합설립 서두르는 단지 '쑥'
'지지부진' 은마·목동 등 집주인은 거주 채비

소유권 취득後 2년內 분양땐 입주권 박탈
청산가치 놓고 분쟁…주택공급 위축 우려

정부가 투기 수요를 막겠다며 내놓은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의무 규제가 되레 아파트값을 올리고 있다. 재건축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 규제를 피한 단지에선 전보다 웃돈이 많이 붙었다. 사업 속도가 느린 단지에선 일찌감치 실거주 기간을 채우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압구정·개포동 조합설립 탄력 =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는 실거주 규제 때문에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엔 재건축 구역이 6곳 있는데, 6구역을 뺀 5곳에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75%를 채웠다. 조합 설립이 늦어져 입주권을 받기 위한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다. 조합 설립을 목전에 두자 아파트값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압구정 1구역에 속한 미성아파트 2차 전용면적 74㎡형은 지난달 22억7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세우더니 현재는 23억 원까지 호가한다. 이 아파트는 이달 초 재건축 동의율 75%를 넘겼다.

28일 조합 설립 총회를 여는 강남구 개포동 주공 6·7단지 상황도 비슷하다. 이달 초 전용 73㎡형 실거래가가 사상 최고가인 20억4000만 원을 기록했다. 현재 시세는 23억 원까지 뛰었다.

강남권 한 재건축 조합 추진위 관계자는 "그동안 재건축 속도를 두고 주민 의견이 갈렸지만, 실거주 의무 강화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게 됐다"며 "주민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노후한 소형 주택의 경우 투자 가치와 실거주 가치가 다른 곳이 많다"며 "재건축 조합원의 거주 기간 요건(2년 이상)을 강화하는 법(도정법) 개정 전에 조합 설립을 마친 곳과 아닌 곳은 같은 조건이라도 가격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치동 은마·목동 신시가지선 속도전 단념하고 실거주 준비 = 반면 일부 재건축 아파트에선 조합 설립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정비계획을 두고 서울시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은마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정비계획을 승인받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여야 대립으로 처음보다는 시한이 연장됐지만 내년 초까지 조합 설립을 마치기에는 여전히 빠듯하다.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일대 아파트는 꼼짝없이 2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을 상황이다. 모든 단지가 재건축 초기 단계인 안전진단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일부 집주인은 일찌감치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주 기간을 채울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노후 아파트 청산 가치와 미래 새 아파트 가격은 비교하기 어렵다"며 "당장 생활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실거주 의무를 채우려는 사람이 다수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론 사업 원활하면 '청산', 지지부진하면 '입주권' 역설도 = 전문가들은 법 취지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형평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시억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실거주 의무 강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서 "소유권 취득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정비사업의 추진 경과에 따라 조합원으로서의 권리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 산 아파트에서 재건축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돼 취득 후 2년 안에 분양까지 마치면 조합원 권리를 뺏기고 사업이 2년 이상 지연되면 입주권을 얻는 역설이 생긴다는 뜻이다.

정부 규제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이 좌우된다는 점도 문제다. 비규제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그 지역에 있던 아파트 소유주는 새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분양 직전에 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된다면 재건축 아파트에 살지 않던 소유주는 하루아침에 입주권을 빼앗길 수 있다.

실거주 의무 강화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법 개정 이후에 분양하는 재건축 단지들은 실거주 기간을 채우기 위해 고의로 분양을 늦추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청산 가치를 두고 조합 내 분쟁도 빈번해질 것"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전세갱신 안되면 더 비싼 집·타지로…

전세난민 내몰리는 '대전 맹모'

〈대치동 전세〉

인천 남동구 노후 아파트에서 전세를 사는 A씨는 집주인에게 얼마 전 계약 갱신을 거절당했다. 이 아파트에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일면서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실거주 기간을 채우겠다고 해서다. A씨는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지만 전세 계약이 끝나는 연말부터 입주 전까지 단기 임대주택에 구해야 할 상황이다.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기 위한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세입자들까지 유탄을 맞게 됐다. 전세난과 맞물려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졌다. 그간 재건축 아파트는 전세 물량 공급에서 한 축을 맡았다. 주거 여건이 열악한 재건축 아파트는 집주인이 직접 살려는 유인이 적어 주변 아파트보다 싼값에 전셋집을 구할 수 있어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서울 재건축 대어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은 10~20%대로 서울 평균(54.2%)보다 낮다.

이 때문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나 노원구 중계동, 양천구 목동 일대 아파트엔 자녀 교육을 위해 전세를 사는 '맹모(孟母)'들이 적지 않았다. 이른바 명문 학교와 학원이 몰려 있어 '학군지'로 꼽히는 이들 지역엔 노후 아파트도 많아 전세가율이 낮았던 까닭이다. 비교적 적은 주거 비용으로 좋은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자녀가 학교에 다닐 동안에만 대치동 학원가 근처에 전셋집을 얻는 '대전(대치동 전세) 살이'란 신조어가 나온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재건축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 이 같은 풍조는 옛말이 될 공산이 크다.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주 기간을 채울 수밖에 없어서다. 새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 최장 2년까지 재계약 기회를 주고 있지만 집주인이 실거주 하겠다고 하면 이마저 무력화된다.

문제는 최근 그러잖아도 최근 전세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전후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2.7% 상승했다. 은마아파트만 해도 올해 초 비싸야 5억 원이면 구할 수 있던 전용면적 84㎡형 전셋집이 지금은 10억 원 넘게 호가한다. 연초 4억~5억 원대였던 목동5단지 전용 65㎡형 전셋값도 지금은 7억 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세계약 갱신을 거절당하면 급등한 시세에 맞춰 집을 새로 구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재건축 아파트에서 집주인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 그만큼 인근 지역에선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임대료는 비싸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美, CPTPP 새판 짤 것…中 액션에 들뜨면 안돼"

RCEP 이어 또 다른 '메가 FTA' 관심 고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으로 '메가 FTA(자유무역협정)' 시대가 열리면서 또 다른 메가 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CPTPP에 복귀하고, 우리나라에 가입을 타진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CPTPP 가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이 현행 CPTPP에 그대로 가입하지 않고 재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히 대비는 하되 미국의 확실한 의사 표현 이후 행동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이 CPTPP 가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가입이 쉽지 않은 만큼 중국이 자국 내 정치용으로 들떠서 하는 발언에 한국이 휩쓸릴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다.

"美, 현행 CPTPP 그대로 가입하진 않아…협상 전망"
"韓, 단독 행동보다 美 입장 정해진 후 동참해야 실익"
시진핑 "가입 고려" 정치적 발언…美, 힘든 조건 걸 듯

◇ "한국, 메가 FTA 추가 가입해야" = 전문가들은 CPTPP 가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우리나라는 개방형 통상국가로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나라인 만큼 메가 FTA 가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다는 것이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CPTPP는 가입국 간 경제가 연결되고, 원자재 등의 소싱(구매)을 공동으로 하면서 상품도 역내에서 함께 판매하게 돼 유럽연합(EU)처럼 공동의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RCEP에 이미 가입했기 때문에 TPP에 또 들어가면 중국 등이 반발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RCEP에 머물기 위한 변명거리밖에 안 된다"며 "우리 같은 나라는 메가 FTA에 가입하는 게 당연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허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CPTPP는 기회가 될 때 가입이 필요하다"며 "장문이 열렸을 때 미국을 포함해 가입을 원하는 국가들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미국 무역 질서 재편 동참 의미" = CPTPP 가입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가 먼저 가입 의사를 밝히는 것은 국제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섣불리 나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CPTPP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미국이 들어가서 무역 질서를 새롭게 하는 데 우리가 동참한다는 것이다"라며 "다만 미국이 가입한다면 현재 있는 그대로는 절대 안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들어가더라도 판을 새로 짤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재협상 시 다른 나라와 같이 행동해야 협상력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현재 상태로 미국이 들어가지도 않는 데 괜히 우리가 손을 들어서 '나 끼워줘'라고 말하는 거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국제적으로 하등 도움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차장은 "바이든 당선인이 아직 CPTPP에 가입하겠다고 발언하지 않아 (한국의 CPTPP 가입을) 예단할 순 없다"며 "다만 미국이 가입한다면 현행 CPTPP에 그대로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재협상에 나설 공산이 높은데 현재 미국 민주당에서 강조하는 노동과 환경 조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설 차장은 "올해 7월 미국·캐나다·멕시코가 참여하는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협정이 발효됐는데 이 협정을 체결할 때 미국이 노동, 환경 기준 강화를 요구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정이 이뤄졌다"며 "미국이 CPTPP 재협상을 할 때 USMCA 협정 체결 때처럼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허 교수 역시 "바이든은 새로운 FTA에 대해 노동과 환경 관련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현재 CPTPP 수준이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미국이 CPTPP에 가입을 한다면 USMCA를 템플릿(본보기)으로 상당한 내용의 계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국 CPTPP 가입, 쉽지 않아"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을 적극 고려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중국의 역내 다자 구조에 대한 의지와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정치용 발언이기 때문에 괜히 가입하지도 않을 중국이 들떠서 하는 분위기에 한국이 휩쓸릴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중국의 CPTPP 가입 발언은 RCEP 체결 성공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한 자국 내 정치용 발언이지 중국도 현실적으로 CPTPP 가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바이밍 중국 상무부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 중국의 가입을 막거나 중국에 가혹한 조건을 내걸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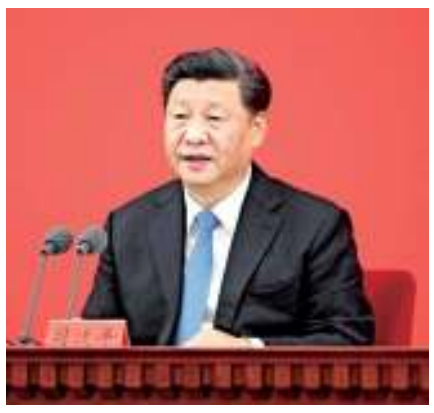
정 교수는 "중국이 CPTPP에 가입하려면 국영기업 제도를 해체해야 하는 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시진핑, 먼저 '협력 메시지' 보냈지만…

〈바이든 당선 축하〉

미·중 무역 재협상 여지 적어



시진핑〈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침묵을 깨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대선 결과 불확실성을 이유로 입장 표명을 미뤄오다가 바이든의 당선이 확실시되자 뒤늦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양국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에 데인 시 주석이 선제적으로 화해 무드를 조성하고 나선 셈인데, 틀어질 대로 틀어진 미·중 관계에 변화가 찾아올지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국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갈등 및 대결이 없는 원칙을 유지하길 원한다"면서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기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3일 미국 대선이 치러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 정상들과 달리 축하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미국 연방총무청(GSA)이 바이든의 명백한 승리를 선언하고 정권 인수 개시를 통보하자 행동에 나선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는 만큼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권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별을 강조하면서도, 중국과 가까워졌던 오바마 시대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등 대중국 강경 노선을 예고한 바 있다.

당장 틱톡의 매각 협상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매각 명령 시한을 내달 4일까지로 일주일 연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4일 '90일 이내에 미국 기업에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의 미국 내 거래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 11월 12일을 매각 시한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시한을 15일 더 연장, 27일로 늦춘 데 이어 일주일의 말미를 더 준 것이다. 바이트댄스는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매각을 두고 월마트·오라클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매각 협상이 불발될 경우,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경계를 강조해 온 바이든 행정부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중국이 내심 기대하는 무역 협상도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스테판 올슨 힌리치재단 연구원은 "바이든이 유세 과정에서 대중국 강경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을 고려하면 바이든이 1단계 무역협상을 재협상할 여지는 적다"고 진단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바이든, 中 중심 무역협정 견제 심리 드러내

동맹국과 中 간접제재 확실시
靑, TPP 가입 결정은 유보
"RCEP와 상호보완적인 협정"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미국의 통상정책이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으로 급격히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자유무역협정(FTA) 중 하나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재가입하는 등 중국 중심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월 취임하자마자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해 12개국이 참여한 TPP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후 일본 주도로 나머지 11개 국가가 CPTPP를 구성해 2018년 12월 협정이 발효됐지만, 미국이 빠져 반쪽자리 FTA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바이든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낸 만큼 다시 TPP에 가입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바이든 정부는 우선 트럼프 정부에서 약화한 국제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세계기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중 무역 정책 또한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동맹국들과 함께 간접적인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시어터' 극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윌밍턴/AP연합뉴스

이에 미국이 TPP에 가입하면 우리나라도 TPP에 가입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15일 서명한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FTA다. TPP 참가국의 모든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11조3000억 달러, RCEP은 26조 달러다. TPP 참가국 가운데 싱가포르, 부르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양 FTA에 모두 가입한 상태다. 아세안 국가를 빼고는 중국과 우리만 남았는데 시진핑 중국 주석은 이달 20일 APEC 정상회의에서 "CPTPP 가입 구상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TPP 가입을 검토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은 아직 TPP에 대해 공식적인 발언은 없다. 다만 최근 중국이 참여한 RCEP 체결과 관련해 미국을 필두로 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력해 무역 질서의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고 견제 심리를 드러냈다.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 부연구위원은 "(바이든이) 당장의 가입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으나, 향후 아태지역 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목적으로 재가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강화된 노동 및 환경 기준을 요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달 23일 시진핑 주석의 TPP 가입 검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CPTPP와 RCEP은 대결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이라며 "(TPP가) 필요하다고 느끼면 들어갈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결정할 시기는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까지 TPP에 가입할 경우 우리나라의 외교적 부담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 FTA는 우리의 경제영토라고 볼 수 있는데 TPP 가입은 우리 경제의 글로벌 진취력을 극대화할 무대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coway

코웨이 정수기,
1등이 만들면 다릅니다

1번 더 앞서가는
총 761건의 정수기 특허 보유

1개라도 더 거르는
직수 전용 RO필터 개발

1명이라도 더 만족시키는
26종의 직수, 얼음, 빌트인 정수기

AIS정수기 한뼘직수정수기 빌트인정수기

www.coway.co.kr | 1588-5200 | 코웨이 코디, 전국 대형마트,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특허 : 특허 개수는 대한민국 및 해외 등록 특허 (2020년 5월 기준) ◦ 1등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최,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K-BPI) 정수기 부문 22년 연속 1위 (선정 기간, 1999년~2020년)

"어려울수록 사회공헌"…코로나 속 연대정신 빛났다

이투데이 주최로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0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장인 유일호(뒷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전 경제부총리와 각 부문별 수상자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SK이노 '독거노인 돌봄' 아모레퍼시픽 '소상공인 지원' 등 18개 기업·기관 수상…"CSR 활동 널리 알려 참여 늘려야"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사회적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이투데이는 기부와 봉사활동을 넘어 사회캠페인, 경영혁신, 교육 기회 보편화 등 기업의 진화하는 사회적 책임 활동 지혜를 나누는 건전한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개인과 공동체, 기업과 구성원, 이해관계자 모두의 지속 가능 성장을 함께 고민하는 '2020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CSR 필름페스티벌'이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CSR 필름페스티벌'은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한 선한 영향력의 연대 확장을 목적으로, 올해 9회째 진행 중인 대한민국 대표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행사다.

이투데이미디어가 주최하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한국국제협력단 등이 후원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을 준수해 수상자와 심사위원 등 최소 인원이 참여해 진행됐다.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와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신준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정민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박상진 한국국제협력단 홍보실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상철 이투데이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기업과 시민단체들도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하지만 K방역에서 드러났듯 한국기업과 시민단체의 저력은 CSR 활동에서도 빛을 발했다"고 말했다.

유일호 전 부총리는 환영사에서 "사회공헌은 어느 일방이 다른 쪽에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상호 윈-윈(Win-WIn)하는 개념"이라며 "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용선 의원은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속담은 CSR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더 널리 알려 사회 인식을 확대하고 더 많은 기업의 CSR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CSR 필름페스티벌에는 코로나19로 CSR 활동이 크게 줄었음에도 기업·기관에서 총 85개 작품이 출품됐다. 심사결과 15개 부문에서 18개 기업이 최종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기획재정부장관상인 상생경제 부문에는 핸드스피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핸드스피크는 공연, 영상, 전시 등 수화언어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 제작해 농인(청각장애인)에게 지속가능한 전문직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을 선보이고 있다.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인 과학문화 저변확대 부문을 수상했다. SK ICT 기술을 활용한 청각장애 택시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고 지원했다. SK이노베이션은 행정안전부장관상인 사회적 가치구현 부문에서 수상했다. 독거노인 케어를 위한 건강한 '독거노인 돌봄' 생태계 조성 사업을 지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인 건강한 사회 부문은 현대홈쇼핑이 수상했다. 현대홈쇼핑은 '아이스팩 재사용, 프라이팬 재활동'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 캠페인을 진행했다. 현대자동차는 따뜻한 사회 부문에서 수상했고, 포스코1%나눔재단은 기술나눔 부문에서 수상했다.

보건복지부장관상의 희망나눔 부문에는 롯데칠성음료가 수상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일상 속 청량함을 선사하는 '녹색식물 데코 버스정류장' 18개를 설치했다. 올림푸스한국과 사단법인대한암협회, 서울산업진흥회는 보건복지부장관상 재능나눔 부문에서 함께 수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제주도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가치 부문에서 수상했다.

고용노동부장관상인 꿈꾸는 사회 부문은 우체국공익재단이 수상했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평등한 사회 부문에서, 아모레퍼시픽은 활기찬 사회 부문에서 수상했다. 아모레퍼시픽은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기획해 서울 남영동 먹자골목의 소상공인을 도왔다.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위원장상(더불어 사는 사회 부문)을 받았다. 국경 없는 음악가들은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의 글로벌 나눔 부문에서, 트리플래닛은 글로벌 공헌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심사를 맡은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서툴더라도 참신한 기획과 더 많은 공감을 주는 작품을 선정했다"며 "특히 문제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담은 작품에 점수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더 큰 '공감'과 '영감'을 주는 행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영록 기자 syr@

2020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 수상작

구분	수상 부문	기업 및 기관명	주요 활동(영상 내용)
기획재정부장관상	상생경제	핸드스피크	수화언어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 제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과학문화 저변확대	SK텔레콤	ICT 기술 활용 청각장애 택시 운전자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상	사회적 가치구현	SK이노베이션	독거노인 돌봄 생태계 조성 사업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건강한 사회	현대홈쇼핑	아이스팩 재사용 등 지속 가능 환경 캠페인
	따뜻한 사회	현대자동차그룹	글로벌 사회공헌 사업 전반
	기술 나눔	포스코1%나눔재단	장애인 시설 리모델링 사업 진행
보건복지부장관상	희망 나눔	롯데칠성음료	녹색식물 데코 버스정류장 18개 설치
	재능 나눔	올림푸스한국, 대한암협회, 서울산업진흥원	암 경험자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기획
	사회가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원스톱 이동편의 운송 시스템 기획 및 운영
고용노동부장관상	꿈꾸는 사회	우체국공익재단	장애 부모 · 자녀 돌봄 캠페인 진행
	평등한 사회	에프알엘코리아	뇌병변 장애인 위한 지원 사업
	활기찬 사회	아모레퍼시픽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기획
금융위원회위원장상	더불어 사는 사회	하나금융그룹	발달장애인 일자리 문제 해결 방법 모색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상	글로벌 나눔	국경없는 음악가들	소외계층 악기 기부 및 재능 기부
	글로벌 공헌	트리플래닛	황폐화된 땅에 과일 심어 수확 후 친환경에너지 설립 지원

심사평

"'함께'라는 가치의 중요성 일깨워줘"

"'혼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자본주의라면, 사회적 책임 활동은 '함께'라는 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찬 가톨릭대학교 경영대 교수는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0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올해 행사에 제출된 영상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2020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에선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세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15개 부문, 18개 기업 수상작을 선정했다

김 교수는 "올해 출품작들을 심사하며 기업들의 CSR 활동을 통해 자본주의 변화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느꼈다"고 강조했다. 수상작을 뽑은 기준에 대해선 "(영상에) 사회 구성원이 공감할 수 있는 이슈가 담겨 있었는지, 현재 시점에서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봤다"고 말했다. 이어 "함께라는 가치를 잘 담고 있는지, 또 문제 제시에서 그치지 않고 해결책(솔루션)까지 제시했는지 등을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노우리 기자 we1228@

환영사 및 축사

"전 국민 힘들 때 상생 필요"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인과 공동체, 기업 등 모든 이해관계자간의 상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총리는 환영사를 통해 "올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는 상생은 더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인식이 확산해 현재 많은 기업이 사회공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공헌을 펼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에 우리가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이 행사가 앞으로도 더 확대되고 발전돼야 한다.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나아가 사회 전반에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확산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유창욱 기자 woogi@

"이익 공유 생태계 만들 때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여주기식 사회공헌을 넘어 협력사와 이익을 공유하는 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업반부패협력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이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팬데믹이 사회 전반에 걸쳐 대변화와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기업의 임직원과 주주만이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소비자, 지역사회 모두를 이해관계자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경영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기후변화 등 세계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사회가치 전파와 혁신적 미래에 대한 전망도 담아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사회 연대로 위기극복"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확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은 CSR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개별경제 주체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 모든 경제주체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합쳐야 위기를 극복하고 생존경쟁에 나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CSR 필름페스티벌의 우수 사례는 다른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에 영감을 주고 있고, 실제 다른 기업으로 확산해 프로그램으로 정착된 일도 있다"라며 "그간 CSR에 기여해 온 페스티벌이 앞으로도 건강한 담론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라고 전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대한민국에 퍼지는 선함… "자본주의 변화의 새 모멘텀"

행사 이모저모

코로나에도 각계 주요인사 참여
'국경없는 음악가들' 연주로 포문
수상기업 사례발표·영상 상영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2020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국경없는 음악가들'이 오프닝 공연을 펼치고 있다. 오른쪽은 개회사하고 있는 김상철 이투데이미디어 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신태현 기자 holjjak@

조용한 행사장에 첼로 연주가 울려 퍼지자 바이올린과 비올라가 음을 보탰다. 그 선율 위로 플룻이 멜로디를 얹었다. 트럼펫의 연주로 분위기가 고조됐다.

26일 서울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이투데이가 주최하는 '2020 함께하는 기업어워드 & CSR필름페스티벌'이 열렸다. 행사는 '국경없는 음악가들'의 연주로 문을 열었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2020 함께하는 기업어워드 & CSR필름페스티벌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CSR 행사'로 발돋움하며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전 세계의 엘 시스테마'를 꿈꾸며 온라인으로 소외계층에 음악을 가르치는 국경없는 음악가들은 '캐논'과 '어메이징그레이스'를 연주했다. 서로가 서로의 소리를 들을 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생각나는 연주였다.

연주가 끝나자 참석자들은 여운에 젖은 표정으로 힘찬 박수를 보냈다.

축하공연으로는 '핸드스피크'가 뮤지컬 '영웅'의 한 장면인 '누가 죄인인가'를 수어 퍼포먼스로 선보였다.

핸드스피크는 20명의 농인 아티스트로 구성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창작 뮤지컬과 연극을 무대에 올렸으며 뮤지컬과 가요의 커버 영상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색적인 수어 공연이었지만 배우들의 손짓과 몸짓에서 안중근 의사의 결의와 기개가 충분히 느껴졌다.

이날 행사에는 심사위원장을 맡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신준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정민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박상진 한국국제협력단 실장, 이호영 연세대학교 기업윤리·CSR 연구센터 센터장 등 각계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김상철 대표는 개회사 중 "이투데이도 CSR에 올해 1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솔선수범하겠다고 발표하자 현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유일호 심사위원장은 "이투데이가 사회적 공헌에 앞서줘서 감사하다"라면서 "특히 필름페스티벌을 통해 CSR이란 이런 것이구나 생생하게 보여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수상기업인 아모레퍼시픽과 핸드스피크 주식회사는 사례 발표를 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영상으로 '우리가게 전담 디자이너' 활동을 소개했다. 핸드스피크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장애예술 활동을 우리만의 비즈니스 솔루션으로 기회를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상작들의 하이라이트 영상도 상영됐다.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현대홈쇼핑 △현대자동차그룹 △포스코1%나눔재단 △롯데칠성음료 △올림푸스한국·대한암협회·서울산업진흥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우체국공익재단 △에프알엘코리아 △아모레퍼시픽 △하나금융그룹 △국경없는 음악가들 △트리플래닛의 활동이 소개됐다.

참석자들은 마스크 위로 눈빛을 반짝이며 영상을 시청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수상기업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많은 직원이 오지 못해 아쉬웠다"며 "내년에는 상황이 호전돼서 CSR의 변화를 모두들 함께 체감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는 심사평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자본주의의 변화에 있구나 하는 행복한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투데이의 CSR 행사가 자본주의의 변화에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주혜 기자 winjh@

"디자인 재능기부로 골목상권 동반 성장"

김태우 아모레퍼시픽 CSR 부장

용산, 젠트리피케이션 심한 곳이지만
낙후 상점,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 것

김태우 아모레퍼시픽 부장이 아모레퍼시픽의 CSR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기업이 지역사회에 의미 있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다짜고짜 용산구청에 찾아갔습니다."

김태우 아모레퍼시픽 CSR팀 부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0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 & CSR 필름페스티벌'에서 '우리 가게 전담 디자이너' 사업이 시작된 과정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8년부터 숙명여대, 코레일네트웍스, CJ CGV 등과 함께 '용산 드래곤즈'라는 이름의 연합 봉사활동 단체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김 부장은 "용산 드래곤즈 활동이 계속 이어지던 와중, 지역 사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CSR 활동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CSR팀 관계자가 직접 용산구청을 찾아가 지역과 상생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탄생한 사업이 '우리 가게 전담 디자이너'다. 서울 용산구 근처의 골목상권을 되살리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 대상으로 삼은 용산구는 아모레퍼시픽 본사가 위치한 곳이기도 하다.

김 부장은 "구청 관계자가 '공직생활 내내 제 발로 구청을 찾아온 기업 담당자는 처음 봤다'며 신기해 했다"며 전했다. 이어 "용산은 이태원을 비롯해 여러 상권이 있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 굉장히 심한 곳이기도 하다"라며 "큰 규모는 아니지만 '회사 인근에 있는 먹자골목을 살려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내 디자이너들이 상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뒤바꾸기 위해 직접 나섰다. 단순히 리모델링 공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가게에서 파는 음식과 분위기에 맞게 디자인 포인트를 새로 잡고 환경 개선에 힘썼다.

기존 낡고 허름한 상점 이미지에서 '지나가다 들러보고 싶은 가게', 'SNS에 인증샷을 올리기 위해 찾아가고 싶은 곳'으로의 탈바꿈을 목표로 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우리 가게 전담 디자이너' 대상 상점 1, 2호점이 디자인 개선을 마치고 재개장했다. 재개장 1년이 가까워오는 현재엔 자연스럽게 주변 가게들의 디자인과 환경 개선도 이뤄지는 등 추가적인 효과도 있었다.

김 부장은 "재개장한 가게 주인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컸다"라며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유난히 힘든 시기를 맞았지만, 최근 안부를 물었을 때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우리 가게 전담 디자이너' 프로젝트를 중장기적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남영동 골목상권이 다채롭고 세련된 디자인을 가진 가게들이 있는 명소를 통해 회사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노우리 기자 we1228@

"농인들, 사회 리더로 많이 세워졌으면"

정정윤 핸드스피크 대표

佛 '농인 아티스트 페스티벌' 韓 주빈국
수어로 대화해도 편하게 보는 사회 되길

정정윤 핸드스피크 대표가 'CSR 필름페스티벌'에 앞서 이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농인들이 예술가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리더로 많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정정윤 핸드스피크 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0 함께하는 기업 어워드&CSR 필름페스티벌'에서 "조금 느리지만 하루하루 우리만의 발걸음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핸드스피크는 수어(手語) 문화예술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농인 예술인 단체다.

정 대표가 농인 청년 문화예술 사업에 발을 들인 것은 2010년이다. 공연기획사에 다닐 때 농인 청년들이 찾아와 수어로 "댄스와 퍼포먼스로 감동을 주는 무대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후 농인 청년 세 명과 단체를 꾸렸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졌다.

정 대표는 "(처음에) 우리가 부딪힌 것은 교육과 환경의 벽이었다"며 "배워야 춤을 추는데 수어로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정 대표와 농인 청년들은 이후 1년간 합숙을 하며 수업을 진행했다. 초빙한 교사의 말을 하나하나 적어가며 춤을 배웠다.

오랜 노력 끝에 핸드스피크는 2016년과 2017년 일본과 홍콩에서 한국 대표팀으로 초청을 받았다.

정 대표는 "한국에서는 무대에 한 번 서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했는데 (일본과 홍콩에서는) 꿈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그 과정이 그리 힘들지 않았다"며 "정부 시스템이나 기업 지원 같은 것이 준비돼있었다"고 말했다.

2018년 한국에 돌아온 뒤에도 수어로 공연, 뮤지컬, 연극, 랩 등 공연을 계속 시도했다. 그러는 중에 유명 아티스트나 연예인들에게서 제안을 받았고, 기업에서도 수어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내년 프랑스에서 열리는 글로벌 '농인 아티스트 페스티벌'에도 초청됐다. 특히, 이번에는 주빈국으로 한국이 선정됐다.

정 대표는 핸드스피크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로 사람, 성장, 팀워크를 꼽았다.

그는 "꿈 많고 열정 많고 재능 많은 친구에게 평등하게 기회가 가지 않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사람 하나하나의 꿈과 삶 자체가 중요하다. 본인들의 삶과 행복을 어떻게 연결할까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느리지만 어제보다 한 단계 더 조금이라도 걸어가고 있으면 성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만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면서 이 길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팀워크에 대해서는 "콘텐츠에서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 없다"며 "3명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20명의 아티스트가 활동하고 있다.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본인의 꿈을 이뤄가고 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마지막으로 "농인들이 예술가에 그치지 않고 리더로 많이 세워지길 바란다. 핸드스피크 대표도 빨리 농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수어로 대화해도 편하게 바라보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한은, 올 성장률 -1.1%로 상향… "내년엔 3% 성장"

0.2%P씩 올려… '경제 회복세 완만할 것' 통방문구도 교체
이주열 총재 "내년 수출 개선과 양호한 투자흐름 지속될 것"
올 소비자물가 전망치 0.1%P ↑…기준금리, 6개월째 동결

대내외적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고 있음에도 우리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적 전망이 나왔다. V자 반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완만한 개선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26일 한국은행은 경제성장률(GDP)을 올해 -1.1%, 내년 3.0%를 예상했다. 이는 직전 8월 전망치(-1.3%, 2.8%)에서 각각 0.2%포인트씩 올린 것이다. 이 같은 전망을 반영해 '통화정책방향(통방)' 문구도 긍정적으로 바꿨다. 기존 국내경제 회복세가 '더딜 것'이란 문구를 '완만할 것'으로 교체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더딘 회복 흐름을, 건설투자는 조정을 보이는 반면, 설비투자는 회복 움직임을, 수출은 개선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내년엔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개선과 양호한 투자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의 경제흐름은 코로나19 전개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이 내년 중반 이후에나 회복되는 비관적 시나리오 하에서도 내년 2.2%, 2022년 1.9% 성장을 예상했다. 낙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내년 3.8%, 2022년 3.1% 성장할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해 이환석 한은 부총재보는 "잠재성장률을 새로 추정하고 있다"며 "V자 반등이냐 아니냐 보다는 완만하게 회복되는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0.5%를 예측해 직전 전망치(0.4%)보다 0.1%포인트 올렸다. 내년은 기존과 같은 1.0%를 예상했다.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는 올해 0.3%, 내년 1.0%를 전망했다. 기존 전망치 대비 올해는 0.1%포인트 낮춘 반면, 내년은 0.2%포인트 올린 것이다. 올해 급등한 농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할 것으로 봤지만 이동통신비 지원·무상교육 등 정부정책 측면에서의 물가 하방압력이 축소되고, 물가 중 10%가량을 차지하는 전·월세 값이 최근 상승한 것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한은은 11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0.50%로 동결했다. 이는 5월 25bp(1bp=0.01%포인트) 인하 이후 6개월째 동결이다.

반면, 통방 종합판단 부문에서 '가계부채 증가' 문구를 삽입했다. 이는 코로나19 발발 직전인 올 2월 이후 처음으로 포함된 것이다. 3분기(7~9월) 중 가계빚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7% 증가해 3년(12분기)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 총재도 "금융불균형을 우려할 단계가 왔다"면서도 "기존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백신 보급이 언제 될 것인지 하는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며 "코로나19가 극복되더라도 위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기보단 여러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내년 성장세가 반등한다 해도 기저효과 측면이 크고 기존 추세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인플레 압력도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통화정책도 당분간 완화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김남현 금융전문 기자 kimnh21c@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왕이 만난 문대통령 "한반도 전쟁 종식 함께해 달라"

왕이 "세상에 미국만 있지 않다"
경제협력 앞세우며 다자주의 강조
바이든 정부 출범 전 우회적 압박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왕 부장은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회담을 언급하며 "우리는 열 가지 공감대를 이뤘다. 양측의 협력, 그리고 지역 이슈에 관한 그런 공감대"라고 답했다.

오전 강 장관의 만남에서 왕 부장은 "한중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금 방역 협력, 경제·무역 협력, 그리고 지역의 안정을 지키기 위한 협력,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력, 그리고 함께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은 중한 FTA(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라며 "중한 간에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또 "물론 우리는 중한 외에 국제, 지역 정세를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미국만이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일본도 유럽도 중동지역도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왕 부장은 특히 경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중 갈등 현안에 대한 중국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왕 부장의 방한 목적이 한국이 미국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향후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내년 출범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 견제수단으로 동맹에 큰 비중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국으로서는 한국의 움직임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에 대해서는 "여건이 성숙하자마자 방문이 성사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여건'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가리키며 "코로나19가 통제돼야 한다"고 했다. 왕 부장이 이날 코로나 통제를 사전조건으로 못 박으면서 시주석의 연내 한국 방문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정일환 기자 whan@

가덕도 신공항·공수처법 개정 與 "정기국회 내 처리" 속도전

공수처장 추천위 4차 회의 결렬
'공수처법' 개정 일단 의결 안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막바지에 입법화하려는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지난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들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어 초대 공수처장 후보 두 명을 추리기로 합의했지만, 여야 갈등이 격화되자 민주당 단독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 밀어붙이기에 나선 것이다.

이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4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출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했지만 최종적인 의결 조율에는 실패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법안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공수처법 관련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해서 의결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김용민, 백혜련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 김 의원 법안은 최종 후보 의결 조건을 '위원 6인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5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두 안을 절충해 일정 기간 내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의결조건을 기존 추천위원 '6인 이상'에서 '5인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정애(왼쪽)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가덕도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막을 내리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목표로 하되 늦어도 내년 초에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136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에 건설되는 공항'이라며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를 명시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양당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게 된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에너지 전환 위해 韓 전력시장 민간 개방해야"

IEA 에너지정책 보고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한국의 효과적인 에너지 전환 추진을 위해 전력 시장 민간 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EA는 26일 발간한 '한국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에서 "한국의 전력 부문은 단일 구매자로 구성된 의무적 풀(mandatory pool)로 운영되고, 도소매 가격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설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IEA 에너지정책 국가보고서는 30개 회원국의 에너지 정책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심층분석 자료다. 한국의 국가보고서는 2006년과 2012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발간됐다.

IEA는 "전력 부문을 개방해 전체 가치사슬에서 진정한 경쟁과 독립적 규제기관을 도입하지 못한 점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는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전력산업은 생산, 수송(송·배전), 판매 등 전 부문을 한전이 사실상 독점한 구조다.

발전 부문은 한전 6개 발전자회사의 점유율이 80%를 넘고 송·배전 부문은 한전이 100% 독점한다. 판매 부문도 한전을 제외한 민간 사업자 비중이 미미하다.

전력업계는 이런 독점 구조가 경영 비효율과 가격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했다며 경쟁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이와 함께 IEA는 국내 전기위원회의 역할이 대체로 자문을 제공하는 데 그치고, 중요한 의사 결정을 모두 정부가 한다고 언급했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2030 임금근로 일자리 16만4000개 증발

코로나發 신규채용 축소 영향

2분기 20·30대 임금근로 일자리가 전년 동기보다 16만4000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중단·연기한 탓이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2분기(5월)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 2분기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1889만6000개로 전년 동기보다 21만1000개 늘었다고 밝혔다. 임금근로 일자리는 사회보험, 일용근로 소득자료 등 행정자료 8종을 활용해 집계한 일자리로, 미가입·미신고 일자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또 실제로 일한 기간을 따져 월(30일 중) 15일 근로 시 0.5개로 계산한다.

연령대별로 40대 이상에선 37만5000개 증가했으나, 20·30대에선 16만4000개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20대 이하에선 8만2000개, 30대에서도 8만2000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는데, 일자리가 감소한 배경은 차이를 보인다. 연령대별 일자리 형태별 분포를 보면, 20대 이하는 신규채용(48.3%)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30대는 지속(75.4%) 비중이 크다. 따라서 20대 이하는 기업들의 신규채용 중단·연기, 30대는 기존 일자리 감소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 입주자모집공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견본주택 운영 안내]

※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견본주택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http://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com/) 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관람을 위한 방문예약은 사이버 견본주택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열 화상카메라를 통한 체온 37.3도가 넘을 경우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 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 서류접수는 등기우편(빠른등기)으로만 가능합니다.(제출기간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서류 미 접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서류접수 방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당첨자의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오산 롯데캐슬 스카이파크는 견본주택 내 분양 상담전화(☎1811-7890) 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기간	계약체결
일정	12월 7일(월)	해당지역	기타지역	12월 10일(목)	12월 16일(수)	12월 17일(목) ~ 12월 26일(토)	12월 27일(일) ~ 12월 31일(목)
		12월 8일(화)	12월 9일(수)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우편접수(빠른등기) (견본주택 방문불가)	방문접수(예약방문제) (10:00~17:00)
장소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견본주택	견본주택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청 주택과 –42578(2020.11.2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오산시 원동 712-1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23층 18개동 총 2,339세대 [특별공급 1,101세대(일반[기관추천] 216세대, 다자녀가구 230세대, 신혼부부 435세대, 노부모부양 68세대, 생애최초 15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전용면적 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기타 공용면적(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 공급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일반 공급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세대수
민영주택	2020001304	01	65.9785	65	65.9785	22.3544	88.3329	46.0327	134.3656	43.9330	445	44	44	89	13	31	221	224	20
		02	74.9772	74	74.9772	24.9953	99.9725	52.3110	152.2835	49.9250	217	21	21	43	6	15	106	111	10
		03	84.9967	84	84.9967	27.4183	112.4150	59.3015	171.7165	56.5966	1,515	151	151	303	45	106	756	759	54
		04	93.9957	93	93.9957	29.9861	123.9818	65.5801	189.5619	62.5888	67	–	6	–	2	–	8	59	2
		05	108.9950	108	108.9950	34.6860	143.6810	76.0451	219.7261	72.5763	76	–	7	–	2	–	9	67	4
		06	127.9149	127	127.9149	42.6498	170.5647	89.2453	259.8100	85.1745	15	–	1	–	–	–	1	14	–
		07	151.4203P	151P	151.4203	49.0170	200.4373	105.6451	306.0824	100.8260	2	–	–	–	–	–	–	2	–
		08	169.6386	169	169.6386	55.7523	225.3909	118.3558	343.7467	112.9570	1	–	–	–	–	–	–	1	–
		09	173.5785P	173P	173.5785	56.1357	229.7142	121.1046	350.8188	115.5805	1	–	–	–	–	–	–	1	–
	합 계										2,339	216	230	435	68	152	1,101	1,238	9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최하층은 1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 등으로 없는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하층으로 함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방식 단수조정으로 인하여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 합과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90세대)는 일반분양 총 공급세대(1,238세대)에 포함된 세대수입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주택형	동별	공급세대수	층구분	해당세대수	분양가격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금(10%) 1차 계약시	2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중도금(60%) 1회 2021.06.15	2회 2021.11.15	3회 2022.04.15	4회 2022.09.15	5회 2023.02.15	6회 2023.07.14	잔금(30%) 입주지정일
65	307동(1,2호), 314동(1,2,3,4호-6층이상) 314동(5,6호), 315동(1,2,3,4,5,6호), 316동(1,2,3,4,5,6호)	431	1층	12	109,787,700	213,212,300	–	323,000,000	계약금 천만원 정액제	2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32,300,000	96,900,000
			2층	14	113,186,700	219,813,300	–	333,000,000		2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33,300,000	99,900,000
			3층	16	116,585,700	226,414,300	–	343,000,000		2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102,900,000
			4층	16	118,965,000	231,035,000	–	350,000,000		2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35,000,000	105,000,000
			5층	16	122,364,000	237,636,000	–	360,000,000		2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36,000,000	108,000,000
			6층이상	357	124,743,300	242,256,700	–	367,000,000		2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36,700,000	110,100,000
	314동(1,2,3,4호)	14	1층	1	108,088,200	209,911,800	–	318,000,000		2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31,800,000	95,400,000
			2층	1	111,487,200	216,512,800	–	328,000,000		2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32,800,000	98,400,000
			3층	4	114,886,200	223,113,800	–	338,000,000		2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33,800,000	101,400,000
			4층	4	117,265,500	227,734,500	–	345,000,000		2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34,500,000	103,500,000
			5층	4	120,664,500	234,335,500	–	355,000,000		2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106,500,000
74	306동(1,2호) 310동(1,2호) 311동(1,2호) 312동(5,6호) 317동(1,2호-6층이상)	211	1층	7	119,984,700	233,015,300	–	353,000,000		2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35,300,000	105,900,000
			2층	7	123,723,600	240,276,400	–	364,000,000		2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36,400,000	109,200,000
			3층	8	127,462,500	247,537,500	–	375,000,000		2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37,500,000	112,500,000
			4층	8	130,181,700	252,818,300	–	383,000,000		2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114,900,000
			5층	8	134,260,500	260,739,500	–	395,000,000		2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118,500,000
			6층이상	173	136,639,800	265,360,200	–	402,000,000		3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20,600,000
	317동(1,2호)	6	3층	2	125,763,000	244,237,000	–	370,000,000		2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37,000,000	111,000,000
			4층	2	128,142,300	248,857,700	–	377,000,000		2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37,700,000	113,100,000
			5층	2	132,221,100	256,778,900	–	389,000,000		2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116,700,000
84	301동(1,2,3,4호), 302동(1,2,3,4호) 303동(1,2,3,4호) 304동(1,2,3,4,5호), 305동(1,2,3,4,5,6호), 306동(3,4,5,6호) 307동(3,4,5,6호) 308동(1,2,3,4호-4층이상) 308동(5,6호), 309동(1,2,3,4,5,6호) 310동(3,4,5,6호), 311동(3,4,5,6호), 312동(1,2,3,4호), 313동(1,2,3,4,5,6호), 317동(3,4호), 318동(1,2,3,4,5,6호)	1,501	1층	36	132,221,100	256,778,900	–	389,000,000	10,000,000	2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116,700,000
			2층	64	136,639,800	265,360,200	–	402,000,000		3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20,600,000
			3층	65	141,058,500	273,941,500	–	415,000,000		3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41,500,000	124,500,000
			4층	65	144,117,600	279,882,400	–	424,000,000		3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42,400,000	127,200,000
			5층	65	148,196,400	287,803,600	–	436,000,000		3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43,600,000	130,800,000
			6층이상	1,206	151,255,500	293,744,500	–	445,000,000		3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44,500,000	133,500,000
	308동(1,2,3,4호)	14	1층	1	130,181,700	252,818,300	–	383,000,000		2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114,900,000
			2층	1	134,600,400	261,399,600	–	396,000,000		2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39,600,000	118,800,000
			3층	4	139,019,100	269,980,900	–	409,000,000		3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40,900,000	122,700,000
			4층	4	141,738,300	275,261,700	–	417,000,000		3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41,700,000	125,100,000
			5층	4	146,157,000	283,843,000	–	430,000,000		3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43,000,000	129,000,000
93	301동, 302동, 303동	67	1층	2	135,512,300	263,170,636	26,317,064	425,000,000		3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42,500,000	127,500,000
			2층	3	139,976,300	271,839,727	27,183,973	439,000,000		3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43,900,000	131,700,000
			3층	3	144,440,200	280,508,909	28,050,891	453,000,000		3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45,300,000	135,900,000
			4층	3	147,628,700	286,701,182	28,670,118	463,000,000		3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46,300,000	138,900,000
			5층	3	152,092,700	295,370,273	29,537,027	477,000,000		3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47,700,000	143,100,000
			6층이상	53	154,962,300	300,943,364	30,094,336	486,000,000		3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48,600,000	145,800,000
108	301동, 302동, 303동, 304동	76	1층	4	151,773,800	294,751,091	29,475,109	476,000,000		3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47,600,000	142,800,000
			2층	4	157,194,300	305,277,909	30,527,791	493,000,000		3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47,900,000
			3층	4	162,295,900	315,185,545	31,518,555	509,000,000		4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50,900,000	152,700,000
			4층	4	165,803,300	321,997,000	32,199,700	520,000,000		4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52,000,000	156,000,000
			5층	4	171,223,800	332,523,818	33,252,382	537,000,000		4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53,700,000	161,100,000
			6층이상	56	174,731,200	339,335,273	33,933,527	548,000,000		4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54,800,000	164,400,000
127	304동, 305동, 306동, 307동, 308동, 309동, 310동, 311동	15	1층	15	194,500,100	377,727,182	37,772,718	610,000,000		5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61,000,000	183,000,000
151P	303동, 311동	2	최상층	2	411,638,600	799,419,455	79,941,945	1,291,000,000		119,100,000	129,100,000	129,100,000	129,100,000	129,100,000	129,100,000	129,100,000	387,300,000
169	301동	1	1층	1	257,314,000	499,714,545	49,971,455	807,000,000		7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242,100,000
173P	302동	1	최상층	1	471,901,800	916,452,909	91,645,291	1,480,000,000		138,000,000	148,000,000	148,000,000	148,000,000	148,000,000	148,000,000	148,000,000	444,000,000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0.12.7(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해당지역)	2020.12.8(화) 08:00~17:30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1순위(기타지역)	2020.12.9(수) 08:00~17:30		
	2순위	2020.12.10(목) 08:00~17:30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 오산시 및 경기도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 300만원 / 600만원 /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 400만원 / 1,000만원 / 700만원 모든면적 / 500만원 / 1,500만원 / 1,000만원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기타지역)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 · 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1.27.)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1순위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 입력 : 청약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입주자 선정기준(가점제 / 추첨제)이 분류됨.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단위 : 원]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92020-101-0011800호	육천구백구십오억육백오십만원 (₩ 699,506,5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	㈜하나자산신탁	(주)엠에스홀딩스	롯데건설(주)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266-22, 1015호 (수청동, 명성위드스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 (잠원동)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31311-0153852	110111-0014764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건축, 토목	전기	소방, 정보통신	비고
회사명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일건축	(주)건창기술단	
감리금액	5,563,499,700	1,197,663,500	990,00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동 등으로 인해 증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월 : 2024년 01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홈페이지 주소 : http://오산롯데캐슬스카이파크.com/

■ 분양문의 : ☎1811-7890

■ 기타 유의사항

• 청약 전 반드시 청약Home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자격 확인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모집공고 축약본으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lottecastle.co.kr)에서 모집공고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관련 문의사항은 대표전화 1811-78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7일 GRAND OPEN

※본 홍보물상의 사진, 이미지컷, 공원CG 및 내용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시행령 제 5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현장 위치 : 경기도 오산시 원동 712-1번지 일원 ※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23층 18개동 총 2,339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시행수탁자 : ㈜하나자산신탁 ※시행위탁사 : (주)엠에스홀딩스 ※시공사 : 롯데건설(주)

분양문의 1811-7890

〈아스트라제네카·옥스퍼드대〉

실수였지만 효과 있다?… 의문 커지는 英 코로나 백신

英 연구진, 백신 복용량 착오 인정 신뢰 추락하며 '승인 지연' 가능성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연구진의 실수에서 비롯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회사 측은 '유용한(useful)'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코로나19 백신의 임상 3상 중간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임상 참가자들이 받은 백신 복용량과 관련해 아스트라제네카가 실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23일 아스트라제네카는 백신의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예방 효과가 평균 70%라고 발표했다. 두 차례 모두 전량 투약한 경우 62%에 그쳤지만, 1차 복용 때 절반을 투약하고 한 달 후 1회분 전량을 다시 투약할 경우 그 효과는 최대 90%까지 올라간다는 설명도 더했다.

다만 모두가 궁금해했던 투약 용량의 차이가 백신의 효과 차이로 이어진 이유에

23일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실에서 연구원이 백신을 들어보이고 있다. 옥스퍼드/AP뉴시스

대해선 제약사와 대학 모두 "모른다"는 입장이다. 메네 팡갈로스 아스트라제네카 부사장은 23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회사는 어떤 참가자에게도 절반 투약을 할 의도가 없었다"고 고백했다. 당초 연구진은 참가자 모두에게 전량 복용을 지시하려 했지만, 계산 착오로 절반만 복용한 집단이 생겼고, 의도치 않은 결과라서 설명도 어렵다는 것이다.

팡갈로스는 이날 NYT와의 인터뷰에선 "사실은 아주 유용한 실수"라며 "아무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았고 그저 투약 오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뭐하러 공개하겠는가? 실수든 고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되레 반문했다.

그럼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백신 초고속 개발 프로그램 최고 책임자 몬세프 슬라위는 "절반 투약군 참가자 모두 55세 이하였다"고 말해 고령자들을 대상으로는 관련 임상이 적용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NYT는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자들에게서 절반 투약이 시험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상 과정에서 결정적인 정보 누락도 있었다. 당초 회사는 임상 참가자들에게 나타난 131건의 코로나19 증상에 근거해 초기 분석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나탈리 딘 플로리다대 생물 통계학자는 트위터에 "모든 정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더해졌는지 알 길이 없다"며 "그들이 보고한 백신 결과는 투명성과 엄격함에서 낮은 점수를 받는다"고 비판했다.

또 투자은행 SCB리링크의 지오프리 폴지스 애널리스트는 "그들이 전체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훼손했다"고 말하는 등 업계에선 이번 오류로 임상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고대영 기자 kodae0@

300년 만에 '최악 침체' 빚내서 돈 뿌리는 영국

"경기부양에 581兆 투입"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300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가 확실시되고 있다. 막대한 국채를 발행해 돈을 쏟아붓고 있지만 경제 회복과 재정 균형이라는 두 마리 토끼 앞에 고민이 깊어간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의회에서 잿빛 가득한 경제 전망을 내놨다. 그는 올해 영국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11.3%로 1709년 '대혹한(Great Frost)' 이후 3세기 만에 최악의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낙 장관은 영국의 내년 2분기 실업률을 7.5%로 예상했다. 실업자 수가 현재보다 100만 명이 더 늘어 2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그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경기 침체는 이제 막 시작됐다"면서 "2022년 이후에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나마 이 정도 전망도 브렉시트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된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다.

앞서 영국은 지난 1월 말 EU에서 탈퇴했다. 영국과 EU는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올해 말까지로 설정한 이행기간 내 무역, 에너지, 교통, 어업 등을 놓고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쟁점 일부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노 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국 정부는 만일 노 딜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으면 관세 부과, 국경 혼란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비교적 타격이 덜했던 제조업마저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막대한 규모의 빚을 내 경제 회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투입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고용을 촉진하고 특히 저임금 노동자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올해 3940억 파운드(약 581조 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9% 수준으로, 비전시 체제하에서 사상 최대 규모다. 김서영 기자 0jung2@

집으로…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25일 추수감사절을 맞아 고향으로 향하는 시민들이 버스 탑승에 앞서 체온을 재고 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코로나發 미국 클라우드 지각변동

세일즈포스, 기업메신저 '슬랙' 인수협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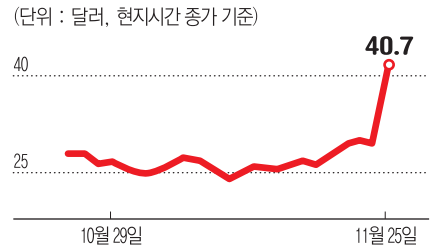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업체 세일즈포스닷컴이 업무용 메신저 '슬랙'을 운영하는 슬랙테크놀로지를 인수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일즈포스는 기업의 고객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로, 시총 약 2300억 달러(약 254조 원)의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판매기업이다. 큰 비용이 발생하는 설치식이 아닌, 클라우드를 통한 구독식으로 제품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공동 창업자는 2018년 시사 주간지 '타임'을 인수하면서 실리콘밸리 내 큰손으로 이름을 알렸다. 지난해에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 태블로소프트웨어를 인수하고, 올해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 벨로시티를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다.

세일즈포스가 이번에 인수하려는 슬랙은

슬랙 테크놀로지스 주가 추이
(단위 : 달러, 현지시간 종가 기준)



다소 복잡하고 업무에 방해가 되던 사무용 이메일을 인스턴트 메신저로 탈바꿈해 더 편리하게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25일 인수 소식이 전해지자 슬랙의 주가는 전일 대비 37.59% 폭등한 40.70달러에 마감하면서 시총도 2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인수 작업이 마무리되면 세일즈포스는 기업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다루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대항마로 부상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 속에 MS의 '팀스'나 화상회의 앱인 '줌' 역시 올해 들어 주가가 폭등하는 등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업계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대영 기자 kodae0@

극단 라하프 단원들

극단 라하프 연출 **이한길**
극단 라하프 단원 **한소라**

휴먼에이드포스트 기자 **홍석진**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라는 설 자리를 만듭니다

하나금융그룹 파워온임팩트

발달장애인들이 취업을 통해서
혼자만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자신만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은 일자리 만들기를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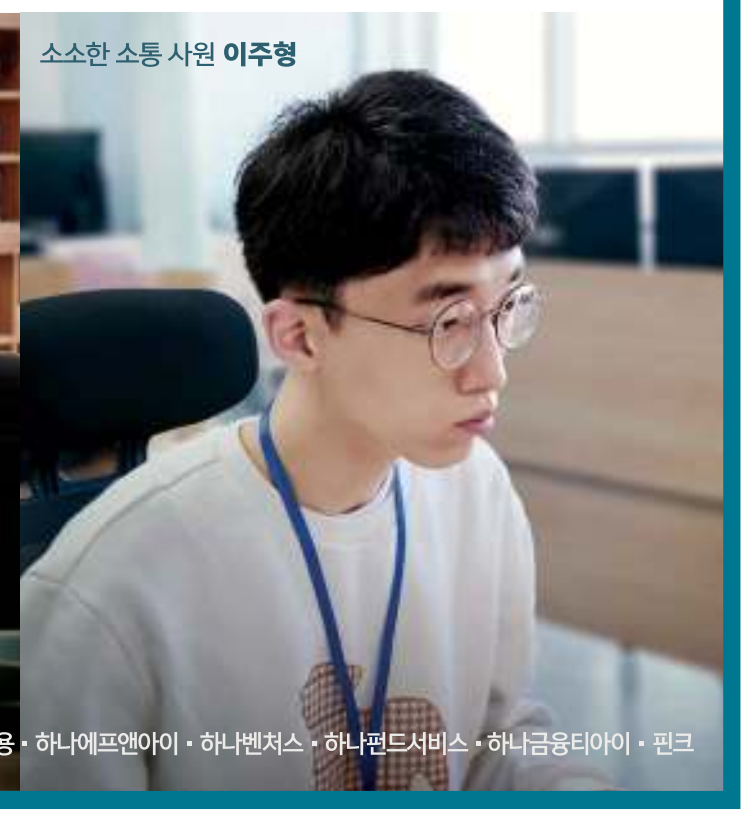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POWER ON IMPACT | 발달장애인들의 강점을 살리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사회 혁신 프로젝트입니다

QR코드를 찍어
[엄마의 졸업식]
Full 영상을 감상해보세요

스프링샤인 도예가 **이재영**

스프링샤인 도예가 **안윤주**


소소한 소통 사원 **이주형**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금융투자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포스코인터, 바이든시대 대비 '탄소중립' 강화

주시보 사장, 비상경영회의서 주문
블루수소·배터리 소재 사업 집중
바이오 플라스틱·재생 PET 검토

주시보〈사진〉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이 '탄소 중립 경제'를 앞두고 철저한 대응 태세를 주문했다.

글로벌 시장이 친환경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포스코인터내셜 역시 이러한 흐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주 사장은 최근 열린 11월 비상경영회의에서 "유엔(UN)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국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저탄소'에서 '탄소 중립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중"이라고 진단했다.

주 사장은 "2025년을 기점으로 탄소 중립을 선언한 국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어떤 기업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 회사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 움직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 사장의 이런 주문에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탄소 중립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먼저 수소 경제 전환에 따라 '블루수소' 사업에서 기회를 찾을 계획이다. 수소는 추출 방식에 따라 △블루수소(이산화수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경우)와 △그린수소(온실가스 없이 수소를 얻을 수 있는 경우) △그레이수소(화석연료를 활용해 수소를 발생시킬 경우) 등으로 나뉜다.

석유화학 사업실은 '블루수소' 도입을 위해 해외수소 공급 프로젝트 발굴 등의 역할을 검토할 방침이다. E&P 사업실은 블루수소 공급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탄소 포집 및 저장(CCS·Carbon Capture &Storage) 중 탄소 저장과 관련해 선제 연구와 검토에 나선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친환경 전기차에 쓰이는 2차전지 사업도 확장한다.

이를 위해 비철사업실과 신성장사업실에 양극재와 음극재의 소재 공급원 확보와 가공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나아가 전기차 핵심부품인 '모터 코어' 사업은 자회사인 포스코SPS 생산기반과 네트워크 역량을 앞세워 핵심사업으로 끌어올린다.

같은 맥락에서 철강원료사업실 역시 탄소배출 저감에 이바지하는 철 스크랩의 활용도 증가에 맞춰 철 스크랩의 적극적인 확대방안을 짜낸다는 계획이다.

화학섬유 수지사업 또한 EU 환경규제 시행(2025년)에 맞춰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바이오 플라스틱 및 재생 페트(PET)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 사장은 "친환경, 저탄소로의 전환은 필요가 아닌 필수적인 과제인 만큼 기존 사업과 연계하거나 혹은 아예 새롭게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산업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란다"라고 재차 주문했다.

특히 주 사장은 비상경영회의를 통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급변할 통상환경에 대해서도 세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정권 교체는 우리의 영업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탄소 제로화를 기본으로 하는 친환경 정책 기조에 따라 자동차, 에너지, 소재 등 모든 산업 분야에서 기존 화석 에너지 중심의 패러다임이 아주 빠르게 전환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 측면에선 미국이 이란에 대한 협상을 재개하고 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관련 조직들의 선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진 기자 eugene@

이규호 부사장

안병덕 부회장

코오롱 '4세 경영' 밑그림 이규호 전무, 부사장 승진

안병덕 ㈜코오롱 대표이사 내정

안병덕 코오롱그룹 부회장이 지주회사인 ㈜코오롱 대표이사에 내정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기에 경륜 있는 수장을 내세운 것이다. 또한, 코오롱은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의 장남 이규호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며 '4세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했다.

코오롱그룹은 36명에 대한 2021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코오롱 대표이사에 내정된 안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그룹을 이끌어갈 경험과 연륜을 갖춘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주사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안 부회장은 2018년도부터 그룹 부회장을 맡은 바 있다.

특히 코오롱그룹의 4세 경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의 최고운영책임자(COO)였던 이규호 전무는 부사장으로 승진해 코오롱글로벌의 수입차 유통·정비 사업을 하는 자동차 부문을 이끈다.

이 신임 부사장은 2012년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공장에서 근무를 시작해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인더스트리 FnC 부문 등을 경험했다. 이번 인사로 이 신임 부사장은 화학부터 건설, 유통, 자동차 부문까지 회사의 주요 사업을 두루 거치며 역량을 쌓을 수 있게 됐다. 김유진 기자 eugene@

중형 조선사 3분기도 '수주 가뭄'…작년보다 20% 감소

주인 바뀐 성동조선 이어 대선조선·한진중·STX조선 매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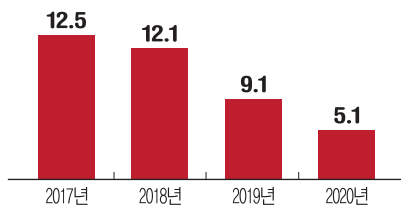
우리나라 중형 조선사들이 올해 3분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쇼크로 7척을 수주하는 데 그쳤다. 구조조정 등 극약처방에도 돌파구를 찾지 못한 일부 업체들은 매각 절차를 밟고 있다.

26일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중형 조선사 3분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 중형 조선사들의 수주량은 9만9000CGT(7척)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감소했다. 수주액은 4.2% 줄어든 2억 달러(2222억 원)에 머물렀다.

수주 선박은 수에즈막스급 셔틀탱커(왕복 운송 전담 유조선) 1척을 포함한 유조선(2척), 피더급 컨테이너선(2척) 소형 화학제품선(3척)이다.

국내 중형 조선사 수주액 추이

(단위 : 억 달러) ※ 2020년은 3분기까지 반영



※출처 : 클락슨리서치 및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올해 9월 누계 기준 수주량은 28만1000CGT(14척)에 그쳤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6% 줄었다.

수주액은 약 28% 감소한 5억1000만 달러(5666억 원)이다.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많은 선주가 선박 주문을 미루고 있는 탓이다.

현대중공업그룹 등 대형 조선사들도 코로나19 변수로 수주에 애를 먹고 있다.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누계 기준 글로벌 선박 발주량은 1156만CGT로, 작년 같은 기간(2240만CGT)의 52% 수준에 불과하다.

하반기에도 중형 조선사들의 수주 가뭄은 계속될 전망이다. 수주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지기는커녕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수주 낭보를 울리고 있지만, 그들이 수주한 선박은 쇄빙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이다. 중형 조선사들의 기술 수준으로 건조하기 어려운 선박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일부 중형 조선사들은 일찌감치 매각 리스트에 올랐다. 성동조선해양은 올해 초 HSG중공업 컨소시엄에 매각됐다. 채권단 관리를 받았던 대선조선은 9일 동일철강과 인수합병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인수를 위한 본계약은 내달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중공업은 지난달 26일 매각 예비입찰을 진행했다. STX조선해양도 매각 주관사로 EY한영을 선정하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LG디오스 식기세척기 스팀 식중독 원인균 3종 제거 인증

LG전자는 디오스 식기세척기 스팀이 젖병, 주방도구 등에 있을 수 있는 식중독 원인균 3종을 없애준다는 시험결과가 나왔다고 26일 밝혔다.

LG전자는 최근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디오스 식기세척기 스팀의 식중독 원인균 제거 성능을 검증하는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물을 100도로 끓여 만든 트루스팀(TrueSteam) 기능이 있는 디오스 식기세척기 스팀(모델명 DFB22MA)을 사용했다.

양 측은 이 제품에 있는 표준코스, 고온살균·스팀 옵션을 선택한 후 젖병, 젖병꼭지, 도마, 수저류, 유리컵, 텀블러, 가위, 칼, 집게 등 12종의 집기를 실험했다.

실험 결과 이 제품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 세균인 장관출혈성대장균(E.coli O157:H7), 휴먼노로바이러스(HuNoV GⅡ-4), A형감염바이러스(HAV) 등 3종을 모두 99.999% 제거했다.

LG전자는 향후 고객이 사용하는 다양한 집기를 대상으로 관련 시험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LG 디오스 식기세척기 스팀은 기존 제품과 비교해 대폭 강화된 세척력, 위생, 편의성을 인정받으며 국내 식기세척기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이 제품은 여러 전문기관이 밥그릇이나 국그릇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최근까지 업계에서 가장 많은 총 13종의 세균과 바이러스를 99.999% 제거하는 살균 성능을 인정받았다. 노우리 기자 we1228@

"국산차, 수입차보다 개소세 38% 더 부담"

한경연 "수입차 유통 중간 과세 국산차만 출고가 기준 역차별"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사실상 국산차와 수입차에 차별적으로 과세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시기의 문제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유통 중간단계에서 부과하는데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 시점은 각각 '제조장 반출 시', '수입신고 시'로 다르다.

국산차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포함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기지만, 수입차는 수입 이후 국내에서 생기는 판매관리비, 영업마진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상대적으로 과세혜택을 받아 조세 중립성을 저해한다고 한경연 측은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으로 관세장벽이 해소돼 수입차의 국내시장 소비와 점유율 확대가 이뤄졌지만, 수입차와 국산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 차이로 조세중립성, 세 부담 형평성 및 세수가 저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수입차 마진율을 30% 내외라고 가정하면 같은 가격의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산차 구매자가 수입차 구매자보다 약 38% 더 많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6000만 원인 수입차를 구매하면 같은 가격의 국산차를 구매할 때보다 개별소비세를 78만 원 적게 낸다. 여기에 개별소비세에 부과하는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02만 원을 덜 낸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과세시기를 판매장 과세로 전환하여 국산차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간단계 과세는 국제적 과세기준에도 어긋나며 주요 자동차 생산국 중 자국생산품에 대해 불리한 세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없어 우리나라만 국내 산업에 불리한 과세체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 시기 변경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상대가격의 구조 왜곡을 바로잡는 것이고, 국제적 과세기준인 최종단계 과세에도 부합해 통상 이슈 제기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김벼리 기자 kimstar1215@

제네시스 대시보드에 지문 대면 '카페이 결제'

주차장·드라이브스루 등 활용
다음 달 선보일 GV70 첫 적용

현대자동차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가 생체 인식을 활용한 지능형 안전기술을 개발했다. 26일 제네시스는 내달 공개 예정인 GV70에 간편결제 시스템의 지문인증〈사진〉 및 '어드밴스드 후석 승객 알림' 기술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먼저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네시스 카페이'를 활용할 때 간편하게 지문을 이용할 수 있다. 카페이는 무선결제 시스템이 있는 주차장과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할 때 차 안에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커넥티드 기술이다. 새 기술을 활용하면 여섯 자리 숫자 대신 시동 버튼 아래에 달린 '센서'에 손가락을 찍으면 쉽게 결제된다.

지문을 활용해 도어를 열고 나면, 해당 운전자가 설정한 시트와 사이드미러 등의 위치도 자동으로 바뀐다.

'레이더 센서'를 기반으로 한 후석 승객 알림 기술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신체 움직임뿐만 아니라 호흡에 의한 흉부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어린이는 물론 카시트에 잠들어 있는 유아의 미동까지 감지한다.

제네시스 관계자는 "향후 센서로 수집한 자료를 복합적으로 분석해 다양한 모빌리티 환경에서 차량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체 인식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창욱 기자 woogi@

우버와 손잡은 SKT, 전동킥보드 시동 걸까

'티맵모빌리티' 연내 출범… 우버와 내년 상반기 중 JV 설립
'티맵 택시'와 더불어 구독형 모빌리티 등 다양한 신사업 계획
킥보드 등 운송수단 공유 앱… 모빌리티 업체와 협업 가능성

SK텔레콤이 모빌리티 사업을 분사해 현재 스타트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까지 진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복수의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SKT는 올해 상반기 이들 업체와 T맵(티맵)에 공유 전동킥보드 위치 정보 표시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동킥보드 업체 대표는 "SKT 측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충전 거치대 위치 등을 티맵에 표시하고 싶다며 접촉했다"며 "실무단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화하는 선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공유 전동킥보드 위치 정보 표시가 단순 논의 차원에서 그친 이유로는 티맵의 메인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SKT가 판단했을 가능성이 꼽힌다. 티맵은 월간 활성 이용자(MAU) 1300만 명에 육박한다. 반면 공유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최근 급증했다고 해도, 각 사를 다 합쳐 MAU가 100만에 훨씬 못 미친다.

하지만 SKT가 모빌리티 사업단을 분사하면서 당시 거론됐던 논의가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단순 위치 정보 표시에 더해 T맵 앱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예약, 이용할 수 있는 '슈퍼 앱'을 만드는 데 힘이 실린 셈이다.

SKT는 신설법인 티맵모빌리티를 만든다고 발표하면서, 미국의 모빌리티 전문기업 우버와 내년 상반기 조인트벤처(JV)도 설립키로 했다. 이 JV는 SKT의 택시 호출 서비스인 T맵 택시를 운영하게 된다. 우버는 조인트벤처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

물적 분할해 신설하는 티맵모빌리티에는 우버가 5000만 달러를 투자한다. SKT는 향후 티맵모빌리티의 4대 핵심 사업으로 △국내 1위 'T맵' 기반 주차, 광고, UBI(보험 연계 상품) 등 플랫폼 사업 △IVI(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차량 내 결제 등 완성차용 'T맵 오토' △택시호출, 대리운전 등 '모빌리티 On-Demand' △다양한 운송 수단을 구독형으로 할인 제공하는 '올인원 MaaS (Mobility as a service)' 등을 꼽았다. 여기서 '다양한 운송 수단'에는 렌터카, 차량공유, 택시, 단거리 이동수단(전동킥보드, 자전거 등), 대리운전 등이 포함된다.

공유 전동 킥보드 업계에서는 SKT가 전동 킥보드 시장에 직접 진출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의 핵심은 킥보드를 물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킥보드의 수거, 배치에 많은 공이 들어가는데 그 일을 직접 하진 않을 거라는 판단이다. 대신 슈퍼 앱을 만들어 다른 교통수단과 더불어 공유 전동킥보드도 예약을 할 수 있게 만들 확률이 높다.

비슷한 시도로 ㈜티머니의 통합이동 서비스 플랫폼 '티머니GO(TmoneyGO)'는 지난달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피유엠피와 손을 잡았다. 티머니GO를 이용해 피유엠피의 전동킥보드인 '씽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티맵모빌리티도 향후 모빌리티 업체와 전방위적인 협업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SK㈜는 쏘카의 지분 22.13%를 투자한 2대 주주이며, 피유엠피에도 지분 10% 이상을 투자한 2대 주주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소상공인도 빅데이터 활용"… KT, 상권정보 '잘나가게' 출시 KT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주변 상권 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상권분석 플랫폼 'KT 잘나가게'를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KT 잘나가게'는 KT의 빅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분석한 매장 주변의 상권, 유동인구, 매출, 경쟁 점포, 업계 트렌드 등의 정보를 주제별 매주 1회 문자로 제공하는 상권분석 플랫폼이다. 음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빅데이터 상권 분석을 이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 KT

中企 원격근무 급증… '비대면 바우처' 신청 10만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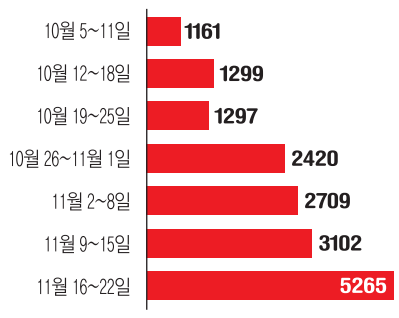
기업당 최대 400만 원 지원
신청 폭증하면서 조기 마감
중기부, 부정행위 점검 나서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쿠폰·이용권)' 신청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는 늘어난 사업 신청 만큼 사업관리 체계 강화 및 현장점검 등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과 부정행위 및 부적정 서비스에 대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화상회의, 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업당 최대 400만 원(자부담 10% 포함)까지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올해 사업예산(2880억 원)으로 지원 가능한 업체수가 8만개임을 감안해 지난 23일까지 신청·접수를 조기 마감한 결과, 최종적으로 10만1146개가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바우처 수요기업 신청접수 추이
(단위 : 건)



지난 19일 사전공지를 통해 23일까지 신청·접수를 마감했으며, 올해 예산 소진으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업은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차년도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10월 첫째 주 일평균 신청 1161개에 비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 일평균 신청은 5265개로 약 5배 증가했다.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컨설팅 및 행사기획 업체인 ㈜스타리치에이치알 임희도 대표는 "컨설팅 업무와 교육도 화상서비스 기능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등 코로나 이후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공급기업 간 과열 경쟁에 따른 수요기업과 유착, 부당 영업행위 등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 내 부정행위 신고센터, 이메일·유선전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48건의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신고·접수되기도 했다.

부정행위 의심 사례는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 △판매수수료 또는 페이백 지급 △서비스 구매시 고가 물품을 제공하는 '끼워팔기' △시중가 보다 비싸게 판매 또는 고가 결제 유도 등으로 분류된다.

중기부는 시장 질서를 저해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엄단할 방침이다. 현재 페이백, 리베이트, 판매대리인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공급기업 5개와 수요기업 49개사에 대해서 현장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는 선정 취소, 보조금 환수,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재훈 기자 yes@

"B tv 'ZEM키즈'로 홈스쿨링 걱정 뚝"

연령·수준·성향별 추천 서비스
윤선생 등 무료콘텐츠 대폭 확대

SK브로드밴드의 키즈 서비스인 'B tv ZEM(잼) 키즈'(ZEM키즈)가 '우리 아이 맞춤형 추천 서비스'로 호평을 받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가정이 주 활동영역으로 바뀌면서 홈스쿨링 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결과다.

ZEM키즈는 영어교육기관 윤선생·스마트학습 밀크T 등 양질의 무료학습 콘텐츠를 대폭 확대해왔고, 고객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교과과정과 연계한 콘텐츠를 강화, 집에서도 쉽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여기에 '우리 아이 맞춤형 추천 서비스'가 재밌고 교육적인 콘텐츠를, 연령·수준·성향에 맞게 추천, 진단 테스트·리포트로 종합적인 학습 관리까지 제공해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자녀를 둔 가정에서 매 순간 부딪히는 고민을 쉽게 해소시켜 준다는 평가다.

우리 아이 맞춤형 추천 서비스 이용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아이 연령과 별명을 입력, 프로필을 등록하면 준비가 끝난다. 프로필 등록 후 ZEM키즈 홈 프로필이 생성돼 아이가 시청할 수 있는 콘텐츠, 시청을 마친 콘텐츠, 진단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콘텐츠 등 우리 아이만의 홈 화면이 제공된다.

ZEM키즈는 국내 IPTV 서비스 중 유일하게 최대 3명까지 자녀별 프로필 등록 기능을 제공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도 아이별로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 가족이 이용하는 TV 속 프로필을 매개체로 아이 눈높이에 맞는 개인화를 적용시킨 대목이다.

ZEM키즈는 영어·동화·누리 영역에서 우리 아이의 학습 수준과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 테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40년 전통의 윤선생과 제휴해 개발한 영어 진단 테스트는 윤선생 500만 회원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15만개 문항에서 추출한 핵심 문항들이 담겨있다. 동화 영역은 아이의 발달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유아발달 검사를 제공한다. 누리 영역에서는 국내 IPTV 최초로 창의력 유형 진단을 통한 누리과정 전문 테스트를 만날 수 있다. 유아 멀티미디어 교수학습 1위 회사 PDM의 창의력 관찰 검사를 통해 아이의 창의력 유형(발명가·해결사·분석가·모험가)이 확인 가능하다.

조성준 기자 tiatio@

"노화 세포를 젊은 세포로"… KAIST '逆노화' 원천기술 개발

노인성 질환·노화현상 억제 치료제 개발 기대감

국내 연구진이 노화된 세포를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역 노화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노화 현상을 막고 각종 노인성 질환을 사전 억제할 수 있는 치료제를 개발할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는 바이오 및 뇌공학과 조광현 교수 연구팀이 시스템 생물학 연구를 통해 노화된 인간 진피 섬유아세포를 정상적인 젊은 세포로 되돌리는 역 노화의 초기 원천기술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널리 연구되고 있는 회춘 전략은 이미 분화된 세포를 역분화시키는 4개의 'OSKM(Oct4, Sox2, Klf4, c-Myc) 야마나카 전사인자'를 일시적으로 발현시켜 후성유전학적 리모델링을 일으킴으로써 노화된 세포를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부분적 역분화 전략이다. 이 기술은 노화된 세포가 젊은 세포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종양의 형성과 암의 진행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생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배제할 수 있는 정교한 제어 전략이 과학 난제로 남아있었다.

조 교수팀은 이러한 난제 해결을 위해 세포의 성장 등을 조절하는 mTOR와 면역 물질 사이토카인의 생성에 관여하는 NF-kB를 동시에 제어하는 상위 조절 인자인 'PDK1'을 찾아냈다. 연구를 통해 노화된 인간 진피 섬유아세포에서 PDK1을 억제했을 때 세포 노화 표지 인자들이 사라지고 주변 환경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정상 세포로서 기능을 회복하는 현상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에는 아모레퍼시픽의 바이오사이언스랩이 참여했다. 아모레퍼시픽 기술연구원은 이번 연구 결과로부터 동백추출물에서 PDK1 억제 성분을 추출해 노화된 피부의 주름을 개선하는 화장품을 개발 중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롯데온 '텃밭' 부산에서 새벽배송 승부수

롯데슈퍼 오토프레시 센터 기반 내달부터 '새벽에 ON' 서비스 非수도권서도 쿠팡과 '새벽전쟁'

롯데온의 새벽배송 '새벽에 ON' 이 부산 경남권에 진출한다. 현재 서울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새벽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쿠팡밖에 없다. 롯데쇼핑으로서는 텃밭 부산을 시작으로 쿠팡과의 '새벽배송' 한판 승부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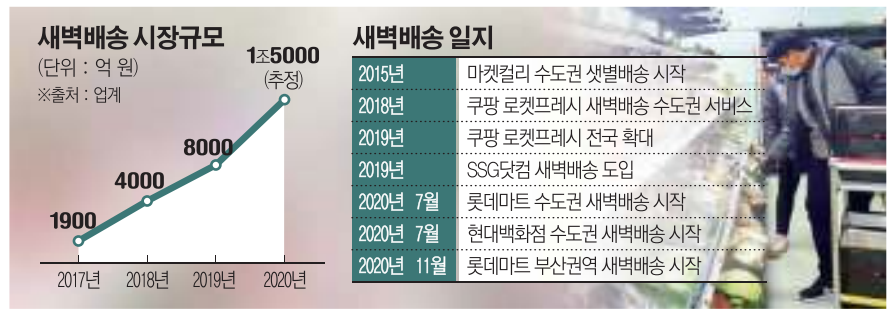
마켓컬리가 첫 발을 내디딘 2015년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100억 원대 수준이었으나 2018년 4000억 원대로 치솟더니 작년에는 8000억 원대로 론칭 4년 만에 80배 몸집을 불렸다. 올해 전망은 1조5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2배 더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이커머스 간의 장보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새벽배송 시장도 함께 커질 것"이라고 봤다.

◇ 롯데온 '새벽에 ON' 칼 갈았다=롯데쇼핑은 롯데온이 내달 1일부터 부산 전 권역을 대상으로 새벽배송 서비스인 '새벽에 ON'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온은 지난 4월 정식 론칭한 후 7월 말부터 새벽배송에 뛰어들었다. '새벽에 ON' 서비스는 김포 온라인 전용센터를 활용해 서울 강남과 송파, 마포, 영등포 등 서울 10개 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김포시와 고양, 성남, 하남, 인천 계양·부평·서구까지 이용 가능했다. 이번에는 롯데슈퍼의 의왕 오토 프레시센터를 이용해 경기 남부 지역까지 대상 범위를 넓혔다.

무엇보다 부산 지역에 진출이 눈에 띈다. 롯데온은 부산에 위치한 롯데슈퍼 오토프레시 센터를 기반으로 부산 전 지역에 새벽배송을 나설 수 있게 됐다. 현재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새벽배송을 하는 곳은 쿠팡뿐으로, SSG닷컴과 마켓컬리 등은 모두 수도권에서만 새벽배송을 운용한다.

롯데마트는 이번에 새벽배송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그로서리 전문몰의 강점을 살린 '3일돼지', '황금당도 과일' 등의 차별화된 신선 전문 상품과 새벽 배송 특화 카테고리인 간편 대용식, 음료 등의 상품을 강화한다. 특히, 새벽 배송은 아침식사 및 간편식을 위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밀키트, 간편식, 델리(Deli) 상품군을 대폭 강화했다.



롯데마트는 이번 새벽 배송 서비스 확대로 주문량이 기존보다 3배, 2021년에는 4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건식 롯데마트 물류 팀장은 "대형마트는 새벽 배송의 주력 상품인 신선 식품에 강점을 갖고 있는 업태"라며, "신선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배송하는 데 집중해 롯데마트의 물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롯데, "'텃밭' 부산 뺏길 수 없다"=이커머스 업체들이 수도권 이외 지방 권역의 새벽배송에 진출하지 못한 것은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커버해야 할 지역은 넓은 반면 인구 밀집도가 낮아 물류비가 많이 든다. 수도권에 비해 객단가가 떨어질 우려도 높다.

특히 새벽배송은 영업시간 규제로 대형마트 점포를 이용할 수 없어 물류센터를 따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크다. 하지만 롯데는 오토프레시센터 부산 서부센터를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부담을 낮췄다.

또한 롯데의 새벽배송 부산 진출은 지방에서 가장 인구밀집도가 높은 대도시라는 점 외에도 부산이 롯데의 텃밭이라는 점이 작용했다.

롯데는 부산을 연고로 한 롯데 자이언츠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고, 부산본점과 센텀시티점, 광복점과 동래점 등 총 4곳의 백화점도 운영하고 있다. 창원점과 울산점까지 포함하면 경남권 백화점 수는 총 6개다. 충성 고객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여기에 호텔도 롯데호텔 부산점과 해운에 시그니엘 2호점을 보유하고, 아웃렛 역시 기장군에 위치한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과 김해시의 김해점 2곳을 보유 중이다. 경쟁사인 신세계프리미엄 아울렛은 부산 해운대 기장군에 한 곳이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부산은 롯데로서는 전통적으로 안방 같은 개념"이라며 "수도권 이외 지방 권역에서는 부산권이 그나마 사업성이 높다는 점도 새벽배송 진출에 작용했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코로나시대 집콕 홈파티 겨냥" 식품업계, 크리스마스 한정판 마케팅

오리온 '크리스마스 초코파이' 오뚜기 '산타컵스프' 내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제과·식품업계에서 '크리스마스 한정판' 마케팅이 한창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강조한 한정판 제품 출시로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 열기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특히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외부에서 단체 송년회나 간단한 모임조차 하기 어려운 만큼 '집콕', '홈파티'를 테마로 삼아 패키징에 변화를 주고, 관련 굿즈를 묶어 출시하는 등 다양한 크리스마스 마케팅이 활발하다.

오리온은 크리스마스 시즌용으로는 처음으로 한정판 '크리스마스 디저트 초코파이'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일반 간식용 초코파이가 아닌, 프리미엄 제품군인 '디저트 초코파이' 라인의 확장판으로 홈카페에서 디저트를 먹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했다는 게 오리온 측의 설명이다.

오리온 '크리스마스 디저트 초코파이'.

프리미엄 디저트를 콘셉트로 삼은 만큼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도 좋다. 비대면 문화가 퍼진 데 따라 쿠팡, 네이버스토어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물론, 또 전국 편의점과 오프라인 초코파이 하우스 매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동서식품은 겨울 시즌 맞이 '맥심 카누 윈터 블렌드'를 한정 판매한다. 카누 윈터 블렌드는 겨울 시즌에만 맛볼 수 있는 한정판 제품으로 코스타리카·브라질·콜롬비아 등 3종의 원두를 다크 로스팅해 초콜릿과 견과류의 아로마와 풍미가 특징이다. 한정판 제품과 함께 윈터 스테인리스 컵 2종과 신년 다이어리&볼펜 세트 등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3종의 굿즈도 제공한다.

오뚜기는 '오뚜기 스프' 50주년을 기념해 '산타컵스프' 한정판을 선보였다. '산타크림스프'는 1970년 오뚜기가 크리스마스 선물 느낌을 콘셉트로 삼아 국내 최초로 선보인 스프다. 일반적으로 스프는 크리스마스 연말이 있는 겨울철 소비가 많은 만큼 산타 이미지를 패키징과 상표로 활용됐다. 올해 다시 선보인 '산타컵스프'〈사진〉 한정판은 당대 산타스프 이미지를 레트로 버전으로 되살렸다. 풍부한 크림과 야채스톡의 풍미를 살린 스프로, 컵스프 타입으로 만들어져 뜨거운 물만 부어 편하게 먹을 수 있다.

한국코카콜라도 '코카콜라 크리스마스 스페셜 패키지'를 출시했다. 패키지는 이전과 다른 뉴노멀 일상에서 찾아온 크리스마스에 주목했다. 그 자체만으로 설렘 가득한 크리스마스를 코카-콜라와 함께 맞으며 행복함이 가득한 연말과 희망찬 새해를 보내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이번 패키지는 크리스마스 고유의 따뜻하고 행복한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표현하며 소장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했다.

파리바게뜨는 크리스마스 머천다이즈 2종을 한정판으로 출시하면서 지난해와 비교해 '집콕용' 굿즈를 강화했다. 파리바게뜨의 크리스마스 머천다이즈는 △모자 부분 탈부착이 가능하고 단추를 여며 망토처럼 활용할 수 있는 담요 '패딩 블랭킷' △패딩 소재가 발목을 감싸줘 겨울철에 신을 수 있는 실내화인 '패딩 부츠' 등 집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 굿즈들이다.

김혜지 기자 heyji@

'겨울과일의 제왕' 롯데마트, 딸기 판매

롯데마트가 찬바람과 함께 돌아온 '겨울과일의 제왕' 딸기를 진주, 논산 등 유명 산지의 '설향' 품종 딸기만을 엄선해 26일부터 전 점에서 판매한다. 롯데마트는 설향 품종 딸기를 시작으로 재배농법과 품종, 산지가 차별화된 '황금당도 딸기'와 '산지뚝심 딸기'로 우수농가와의 상생을 통해 산지의 신선함을 고객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제공 롯데마트

LG생활건강, 올해도 30대 여성 임원 발탁

'후' 이끈 이형석 부사장 승진 '광군제 성과' 지혜경 상무로

LG생활건강이 지난해에 이어 2021년도 임원인사에서도 30대 여성 임원을 발탁했다.

26일 LG생활건강은 이사회를 열고 부사장 승진 1명, 전무 승진 1명, 신규 임원 선임 5명에 대해 2021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내년 1월 1일 자다.

광군제 매출 호조에 힘입어 올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한 LG생활건강은 브랜드 '후'를 중심으로 중국 사업에서 성과를 낸 점이 인사에 반영됐다는 내부 평가가 나온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올 광군제에서 후, 숨, 오휘, 빌리프, VDL, CNP 등 6개 럭셔리 화장품 브랜드가 15억5000만 위안(약 26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지난해 대비 174% 신장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갱신한 바 있다. 특히 '후' 브랜드는 광군제 매출이 지난해와 비교해 181% 신장하면서, '10억 위안'(약 1680억 원) 브랜드 클럽에 입성했다.

이형석 부사장

지혜경 상무

중국 성과에 힘입어 1983년생 올해로 37세인 지혜경 중국 디지털사업부문장이 상무로 발탁됐다. 2016년부터 4년간 젊은 감각으로 변화하는 중국 디지털 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티몰, 알리바바 내 플래그십 스토어 등 중국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채널 전반을 관리한 성과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과 미국에서 색조화장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색조 R&D를 총괄하고 있는 강연희(50) 색조화장품 연구소장도 상무에 올랐다.

앞서 LG생활건강은 지난해 정기 임원 인사에서 심미진(39) 상무와 임이란(35) 상무 등 역대 최연소 30대 여성을 임원에 앉히며 눈길을 끈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임원 5명 중 2명이 여성으로, 이번 인사로 LG생활건강의 여성 임원은 11명으로 늘었다.

이형석 전무는 '후'의 글로벌 명품 브랜드화 및 차세대 럭셔리 브랜드의 육성으로 사업을 성장시킨 성과를 인정받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국내외 사업의 성장 가속화 지원 및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와 인재개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기룡 상무는 전무로 승진했다.

LG생활건강은 "성과주의와 조직 내 성장 기회를 고려해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며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인재와 젊은 사업가를 신규 임원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혜지 기자 heyji@

대상 '할랄 김치'로 카타르 공략

대상이 청정원과 종가집을 앞세워 인구 4억 명 규모의 중동시장 공략에 나섰다.

대상은 종가집 김치, 두부, 떡류, 단무지, 우엉, 유부초밥, 쌈무 등 신선식품이 카타르 현지 메인스트림 유통채널인 까르푸, 룰루, 스파, 모노프릭스 등 총 21개 점포에 입점하고 본격 판매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2009년 청정원 장류(고추장, 된장, 쌈장)가 룰루에 입점하며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장류 제품 판매를 시작한 바 있다. 이번에 카타르에 입점한 신선식품을 포함해 장류, 소스류, 편의식, 해조류 등 총 44개 품목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종가집 김치는 '무슬림이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허용된'이라는 의미를 가진 할랄(Halal) 인증을 받은 포기김치, 맛김치, 총각김치, 깍두기 등을 판매하고 있다.

이라크에는 종가집 캔김치, 컵쌀국수, 청정원 장류, 카레, 조미김 등 상온식품이 최근 쿠르디스탄 내 현지 메인스트림 유통채널인 까르푸, 마지디몰, BRZ 등에 입점했다. 대상은 이라크 내 수입에 유연한 지방자치정부 관할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점차 확장해나간다는 전략을 세웠다.

김혜지 기자 heyji@

관피아 피하니 정피아?… 차기 생보협회장에 정희수

손보협·은행협 '관피아 논란'에 관료출신 유력 후보들 잇단 고사 생보협 '文캠프 출신' 단독 내정 회추위 내달 4일 총회 공식 선임

차기 생명보험협회장에 정희수 보험연구원장이 내정됐다. 정 원장은 전직 3선 국회의원에 문재인 대선 캠프에 참가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이로써 6년간 민간 출신의 회장이 이끌었던 생보협회는 처음으로 정치인 출신의 수장을 맞이하게 됐다.

생보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26일 2차 회의를 열어 정 원장을 차기 회장 단독 후보로 추천하기로 했다. 회추위에는 삼성·한화·교보·NH농협·미래에셋생명 등 5개 이사회사 대표와 장동한 보험학회장, 성주호 리스크관리 학회장 등 외부 추천위원 등이 참여했다. 정 원장은 다음 달 4일 회원사 총회에서 최종 선임된다. 회추위 측은 "연수원장으로 보험 현안에 밝고 업계 의견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협회가 중심이 되서 정관계와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보험 업계는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문성 만큼이나 소통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2023년 새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있으며 최근 정부와 여당이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와 저축성보험 판매로 잠시 호황기를 맞이했지만, 저금리와 저출산 등 구조적인 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경북 영천 출신의 정 원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소속으로 17·18·19대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을 지냈다. 19대 의원 시절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한나라당 경상북도당 위원장, 사무총장 대행 등을 역임한 대표적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으로 분류됐다. 이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공천에서 탈락했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4월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겨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2018년 12월부터 제17대 보험연구원장으로 재직해왔다.

이번 생보협회장은 선임 전부터 '관피아' 논란이 불거졌다. 유력한 후보로 진동수 전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전 금융감독원장 등이 거론됐고, 손해보험협회와 은행연합회 등도 금융위 출신이 임명되면서 자연스레 생보협회도 관료 출신이 선임될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두 후보가 논란을 의식해 후보직을 고사하면서 마땅한 후보가 남아 있지 않았고, 정 원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정 원장은 차기 생보협회장 인선 시작 전부터 물밑 작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생보협회 전 임원이 이번 협회장 선임에 힘을 좀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퇴직했음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비판 기류를 의식해 2014년부터 민간 출신 회장을 선임해왔다. 신용길 회장은 교보생명 출신이었고, 전임 협회장인 이수창 회장도 삼성생명 사장을 지냈다. 이러한 선임 기조는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은 불식했으나 금융당국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곤 했다.

한편 신용길 현 생보협회장의 임기는 다음달 8일까지다. 정 내정자는 1년 남은 보험연수원장 임기를 도중에 내려놓고 다음달 9일 취임한다. 생보협회장 임기는 3년이다.

곽진산 기자 jinsan@

'폭탄' 돌리는 우선株 '나몰라 랠리'

SK증권우 등 '이상 급등락' 반복 거래소 불공정거래 집중 모니터링 괴리율 50% 초과땐 '단일가 매매'

"폭탄 돌리기 인가요?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다른 배로 갈아탑시다!"

26일 인터넷 주식투자 게시판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14% 가까이 하락한 SK증권우 종목에 흥분한 투자자들의 글이 이어졌다. 전날 상한가에 오른 지 하루 만에 곤두박질쳤다. 하지만 주가가 급등락한 이유는 투자자들도 몰랐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우선주들이 연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선 "'폭탄돌리기'라 할 수 있다. 우선주에 섣불리 투자했다간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주가가 급등한 우선주들은 주가가 저렴하고 상장 주식 수가 적다는 점에서 투기 세력의 시세 조종이 쉽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상한가를 기록한 SK증권우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3.91% 하락한 625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던 삼성중공우는 이틀 연속 하락마감했다.

해당 종목 증권 게시판에는 "오늘은 이정도면 됐다", "다음에는 A종목 우선주로 가자"며 우선주 폭탄돌리기를 부추기는 글이 상당수 올라오고 있다.

주요 우선주 최근 3거래일 수익률
(단위 : %)

종목	11월 24일	25일	26일
코오롱글로벌우	-4.25	-1.33	29.99
서울식품우	5.58	-7.67	29.89
신풍제약우	0.78	-1.15	10.51
SK증권우	-0.18	29.87	-13.91
삼성중공우	29.94	-6.08	-14.41

※출처: 한국거래소

이외 코오롱글로벌우, 서울식품우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신풍제약우도 10.51% 상승마감했다. 세 종목 모두 보통주보다 우선주의 상승폭이 가파르다.

코오롱글로벌우는 대규모 도시정비 사업 재개발 시공권을 수주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 코오롱글로벌은 7.32% 상승마감했고, 우선주는 상한가를 쳤다.

서울식품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간편식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이 역시 보통주인 서울식품은 20.25% 상승하는데 그쳤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의결권이 없는 주식으로 대신 더 많은 배당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든 종목이다. 하지만 의결권도 없는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더 높은 가치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이다. 대부분 상장 주식 수가 보통주보다 적고, 시가총액이 낮은 저유동성 종목이라 투기세력의 표적이 된 영향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우선주의 이상 급등현상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단속 기준도 강화했다. 오는 7일부터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50% 이상 비싼 상태가 10일 동안 3회 이상 반복되면 단일가 매매 대상이 된다. 한 번 단일가 매매 대상으로 지정되면 3일 동안 이 같은 방식을 유지한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 이후에도 50% 이상 비싼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3일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단일가 매매를 연장한다.

손엄지 기자 eoml@

'稅혜택 쏠쏠'… 리츠 뛰어드는 운용사 '미래 먹거리·투자 다변화' 두 토끼 잡나

하나대체, AMC 예비인가 준비

자산운용업계가 새 먹거리를 찾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사모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올해 상반기 일몰되면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리츠에 대한 관심이 쏠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하 하나대체운용)은 리츠(REITs)자산관리사(AMC) 출범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본인가까지 6개월가량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회사는 내년 상반기 리츠 업무를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나대체운용 관계자는 "비이클(vehicle·투자수단)에 있어서 펀드와 함께 리츠라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대체운용은 국내 오피스 투자시장에서 '큰 손'으로 꼽히는 부동산 전문 운용사다.

리츠 AMC는 이 같은 공모 리츠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자산관리회사다. 리츠 AMC를 인가받으려면 자본금 70억 원 이상과 전문 운용 인력 5명 이상이 필요하다. 기존 부동산신탁사들만의 리그였던 리츠 시장은 리츠와 부동산펀드의 겸영이 허용된 2016년 말 이후 마스턴투자운용(2017)과 제이알투자운용(2017), 이지스자산운용(2018) 등 일부 자산운용사들이 진입을 시작했다. 그러다 올해 하반기부터 운용사들의 리츠 시장 진출은 올해 하반기 두드러지고 있다.

리츠 수 및 자산규모 추이
※ 2020년 10월말 기준 ※출처: 국토교통부 리츠정보시스템

연도	리츠	자산총계(조 원)
2010년	50개	7.6
2011년	69개	8.2
2012년	71개	9.6
2013년	80개	11.8
2014년	98개	15
2015년	125개	18
2016년	169개	25
2017년	193개	34.2
2018년	219개	43.2
2019년	248개	51.2
2020년 10월	274개	57.6

이처럼 최근 운용사들이 리츠 시장에 주목하는 것은 세제 혜택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6월부터 신설되는 사모 부동산 펀드에는 별도 합산 과세가 적용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사모와 공모상품 모두 재산세 분리과세 0.24%가 적용되는 혜택이 있었으나 이 제도가 일몰된 것이다. 신규 부동산펀드의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수익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반면 정부가 리츠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이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운용사들의 잇따른 시장 참여에 대해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온다. 리츠 사업에 뛰어드는 운용사가 많아진다는 점은 그만큼 경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으로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희비 갈린 하반기 새내기株

빅히트 등 대어 '거품론' 속 SK바이오팜 수익률 256% '이름값'

올해 하반기 국내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빅히트엔터,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등 IPO(기업공개) '대어'가 줄줄이 상장하면서 청약 시장에 광풍이 불었지만, 대다수 기업 주가는 상장 후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신규상장한 기업은 스팩 상장, 재상장 제외하고 유가증권시장 9개, 코스닥시장 40개로 집계됐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 중 주가가 가장 크게 오른 기업은 SK바이오팜으로 공모가(4만9000원) 대비 25일 종가 17만4500원을 기록해 256%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어 교촌에프엔비가 공모가 대비 84%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제일 크게 떨어진 곳은 에이플러스에셋으로, 공모가 대비 18.9% 하락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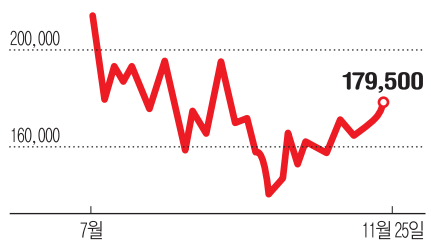
특히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총 5개의 리츠가 상장해 공모리츠 활성화에 불을 댕겼다. 리츠 공모가는 5000원으로 정해지는데,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투자하기에 주가 변동 폭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코스닥시장에 새롭게 상장한 40개 기업 중 공모가 대비 주가가 오른 기업은 31개로 집계됐다.

주가가 가장 크게 오른 종목은 피플바이오로 공모가(2만 원) 대비 전일 주가 5만3600원을 기록해 168% 상승세를 보였다. 전날 상장한 하나기술 역시 '따상'(상장 첫날 공모가 대비 두 배로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 마감)을 기록하며 160% 급등했다.

반면 가장 크게 떨어진 종목은 비비씨로 공모가 3만700원 대비 1만8650원까지 떨어져 39%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서 IPO 대어로 꼽힌 카카오게임즈는 공모가 대비 101% 오른 상태다.

SK바이오팜 주가 추이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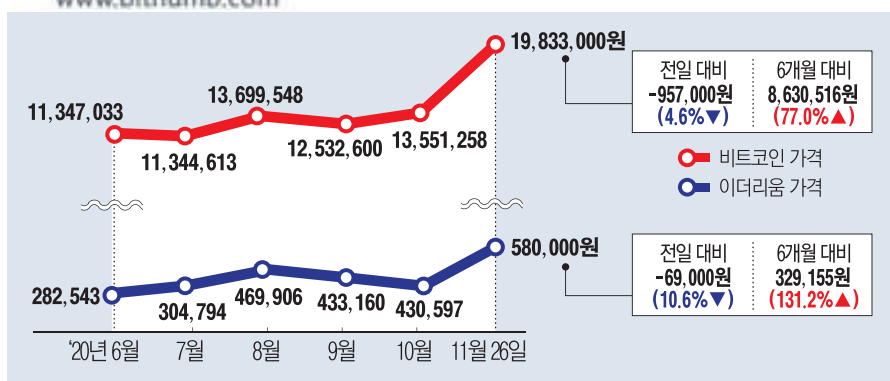
하반기 공모주 청약 광풍이 불며 투자자 예탁금, 공모 청약 증거금, 청약 경쟁률 등 연일 신기록을 경신했지만, 대다수 기업 주가는 상장 첫날 반짝 올랐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기업 주가는 상장 이후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주가 변동성이 커지자 일반 투자자를 위해 현재 공모가 선정방식에 기업가치 이외 시장수요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인아 기자 ljh@

bithumb 빗썸 www.bithumb.com

빗썸 지수(2020년 11월 26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314,500	-55,200 (14.9%▼)	이오스	3,387	-468 (12.1%▼)
리플	577	-168 (22.6%▼)	비트코인골드	9,770	-1,500 (13.3%▼)
라이트코인	85,650	-10,900 (11.3%▼)	이더리움 클래식	7,045	-1,370 (16.3%▼)
대시	100,800	-23,300 (18.8%▼)	퀀텀	2,850	-421 (12.9%▼)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박사방’ 범죄단체조직 인정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아동·청소년에 복구 불능 피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사진)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유치원 출입 및 접근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유인하고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오랜 기간 여러 사람에게 유포했다”며 “특히 많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해 복구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사방 조직은 피고인들 주장과 달리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아동과 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로지 범행 목적으로 구성되고 (회원들이) 가담한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기 위해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도 있다. 조 씨와 박사방 가담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드는 등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는 또 지난해 4~9월 4회에 걸쳐 손석희 JTBC 사장에게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주겠다’고 속여 1800만 원을 받아내고, 사기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있다. 김종용 기자 deep@

수능 시험장 가림막 설치 특별방역 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6일 수능이 치러질 대구 시내 한 시험장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이 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와해’ 혐의 강경훈 부사장 항소심도 실형

삼성 에버랜드 노조 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56) 삼성전자 부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삼성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 미래전략실과 에버랜드 인력을 동원해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겼고 노조에 상당한 피해를 안겼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강 부사장이 실제 실행했거나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않은 범행의 경우도 그가 최초에 노사 전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공모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각 범행은 개인적인 이득을 위한 것보단 삼성그룹 차원의 노사전략에 따라 이뤄졌다”며 “삼성은 또 이 사건을 계기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에서 근무하며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에버랜드의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 부사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종용 기자 deep@

‘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확정

대법, 성폭력 혐의는 무죄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도 확정됐다.

윤 씨는 지난 2006~2007년 김 전 차관에게 소개한 A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관공서 인맥을 통해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는명목으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14억 원을 받는 등 5명으로부터 총 38억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윤 씨는 내연관계에 있던 B 씨로부터 21억 원을 빌린 뒤 상환을 요구받자 부인에게 자신과 B 씨를 간통죄로 고소하게 한 혐의도 있다.

윤 씨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재수사 끝에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골프장 인허가 관련 사기, 알선수재, 강원도 원주 별장 편취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8700만 원을 명령했다.

대법원은 “사기,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소사실 중 성폭력 혐의 부분 등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도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정수천 기자 int1000@

檢,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정영제 골든코어 대표 검거

검찰이 옵티머스 사기 사건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정영제 골든코어 대표(57)를 검거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옵티머스 사건 추적/검거팀)은 전일 오전 수배 중이던 옵티머스 펀드 사기 공범 정 대표를 검거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정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기영 기자 pgy@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12월호 발매

COVER STORY end year and 新 year
PART1. 코로나로 물든 한 해를 보내면서
PART2. 스타일리시하게 겨울나기
PART3. 근사한 연말을 위한 취향별 홈파티 메뉴판
PART4. 멀티 공간으로 변한 우리 집
PART5. 명상으로 마음 안아주기
PART6. 비대면으로 마음을 전해요

주저앉아 울기도 많이 울었다
“아이, 이제 인생을 즐길 나이에 어쩌자고 고생길을 자청하나?” 이해숙(55, 괴산애플랜드 대표) 씨가 처음 귀농을 결심했을 때 친구들이 했던 말이 이랬다. 이후 9년 세월이 흘렀다. 해숙 씨는 그간 농원을 가꾸고 키우는 일에 모든 열성을 쏟았다. 덕분에 이제 어지간히 기반이 잡혔다. 그러나 친구들의 촌평엔 여전히 개탄이 실려 있다. “아이고야 나 못살아, 언제까지 이 고생을 계속하며 살 거야?”

브라보가 만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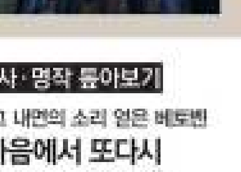
동백꽃이 피었습니다
권진성 변호사

이수영 회장의 통 큰 기부와 사유의 품격
올해 대한민국을 뒤흔든 시니어를 만나다

고유한 나로 살게 하는, 글로써 숨 쉬는 삶
신이현 소설가

김혜영의 느린 여행
동해남부선의 추억을싣고
바다와 가장 가까운 철길이 강원도 강릉 정동진이라고 했다. 달맞이고개에서 동해남부선 열차를 봤을 때 이 철길은 바다와 두 번째로 가까운 거리로 생각했다. 빨간 무궁화열차가 바다에 닿을락 말락 실랑이하듯 달렸다. 이제 그 철길에 새 해변열차가 달린다.

삼삼오오 50+ 커뮤니티 리릴라 우쿨렐레 연주로, 일상을 더욱 사랑하게
누구나 한 번쯤 취미로 악기 연주를 생각해본 적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우쿨렐레는 배우기 쉽고 크기도 작은 편이라 시니어에게 인기가 좋다. 그렇게 취미 삼아 시작해, 이제는 아름다운 연주로 이웃을 위로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우쿨렐라 한마당’ 커뮤니티다.



엄마가 엄마에게
간 해독과 피로 해소에 좋은 어패류 레시피

명사·명작 들어보기
청력 잃고 내면의 소리 얻은 베토벤
“마음에서 또다시 마음으로 가리라”

정기구독 신청 Tel. 02-799-2680 Fax. 02-799-6700 1권: 1만원 / 1년 구독: 10만원 독자의견 접수 및 제보 (02)799-6713~7 이메일 bravo@etoday.co.kr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알면 알수록 타면 탈수록
자동차 금융도 역시 KB
구매는 더 부담 없게
우대금리 적금과 여유로운 대출한도로 구입자금을 더 쉽고 빠르게 모아요
거래는 더 안심되게
인공지능기술로 정확한 중고차의 시세를 확인해요
운전은 더 안전하게
안전주행하고 보험료도 할인받아요
생활은 더 알뜰하게
주유, 정비 등 다양한 카드 할인 혜택을 누려요
금융은 역시 KB
KB국민은행 | KB손해보험 | KB국민카드 | KB캐피탈
KB증권 | 푸르덴셜생명 | KB자산운용 | KB생명보험 | KB부동산신탁 | KB저축은행 | KB인베스트먼트 | KB데이타시스템 | KB신용정보
KB금융그룹

파주 '블루메미술관'

茶香처럼 스며드는 예술

떡하니 버티고 선 블루메, 야생화 흐드러진 정원

파주 헤이리는 문화예술인들이 만든 공동체 마을이다. 볼 것 많고, 거닐 곳 많아 찾아와 노니는 이가 많다. 저마다 개성에 찬 건축으로 돋보이는 미술관, 박물관, 공방, 카페, 그리고 살림집이 즐비하다. 자연 환경을 존중해 지은 건축들의 좋은 매너와 세련미, 그리고 거주자들의 재능과 활동력으로 생동하는 신흥 예술타운이다. 파주시의 이채로운 문화 브랜드이기도. 블루메미술관이 여기 헤이리에 있다.

100년 넘은 굴참나무 미술관 내부로 끌어들여
나무와 건물·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간으로
백순실 화백이 설립… '정원' 주제 기획전 잇따라

블루메·푸른 산? 아니다. 굴참나무(Quercusvariabilis Blume)의 학명 끝 단어를 따온 이름이다. 블루메미술관의 상징물이 굴참나무이기 때문이다. 미술관 입구에 신장(神將)처럼 떡억 버티어 선 우람한 굴참나무 한 그루. 수령 100년이 넘은 거목이다. 아파트 5층 높이에 맞먹는 장신 노목이다. 세상 이치에 한소식 이미 했을 굴참나무. 이걸 본디 자리에 그대로 두고 건축을 한 건 오래 살아남은 생명에 관한 예우에서다.

나무 한 그루 살려둔 게 무슨 대수냐 싶지만, 이 미술관의 설립자는 시원하게 싹 베어내 공간을 확보하자는 주변의 의견을 거슬러 건축을 했다. 그는 자연을 정중하게 대접하지 않고선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성향의 소유자? 낮아지자, 모든 살아 있는 식물 앞에서 고개 숙이자, 그는 그쯤의 자세를 견지해 자신이 영혼 없이 사는 속물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하기를 관습으로 삼은 인물이려나? 그런데, 굴참나무를 살려두고 건축을 하는 데엔 지난한 과정이 따랐다. 나무를 건축으로 품기 위해 쏟아 부은 비용만 해도 1억 원 이상이었다고.

면밀한 설계도 기본이었다. 블루메미술관은 노출 콘크리트 공법을 주조로 건축한 미술관이다. 설계자는 중견 건축가 우경국(예공아트스페이스 대표)이다. 우경국은 어마어마한 덩치를 가진 굴참나무를 건축의 내부로 끌어들이기 위해 최대한 개방적인 공간 구성을 하고, 콘크리트 벽에 사각형 구멍들을 숭숭 뚫어냈다. 나무를 감옥살이시키지 않기 위해서. 덕분에 나뭇가지들은 구멍을 통해 벽을 탈출, 구차한 속박 없이 생장할 수 있게 되었다. 우경국의 얘기는 이렇다.

"그 자리에 존재하는 나무는 건축이며, 동시에 관습적 공간의 내·외부 개념을 해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됐다."

설계자는 굴참나무를 건축의 하나로 읽었던 거다. 나무가 집의 외부에서만 자란다는 통념을 깼다는 얘길 하는 거고. 그는 설립자의 의도를 충실히 구현한 셈이다. 나무와 건물,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존을 근간으로 미술관을 만들고 싶다는 설립자의 취지는 이 미술관 안팎에 조성된 정원 공간들의 수려함과 다양성을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2층 중정(中庭)은 통째 야생초 꽃밭으로 인위와 자연이 만나 형성한 매력적인 생태 경관을 펼쳐 보인다.

건물이 등을 기댄 뒷산 자락의 수목들은 또 어떻고? 손댄 바 없이도 찬연한 미감으로 빼어난 자연정원이다. 이러하니 '정원이 있는 미술관'이라기보다 '미술관이 있는 정원'이라 할까보다. 이 미술관에 그림을 보러 온 사람들은, 벽 구멍을 다소 수고스럽게 관입하고서도 은성한 우듬지를 이룬 굴참나무의 곡예와, 가을꽃들 하늘거리는 정원의 미모를 뜻밖의 보너스로 관람하게 된다.

그렇다면 자연을 잘 북돋아 만든 블루메미술관의 설립자는 대체 뉘신가. 서양화가 백순실(70) 선생이다. 미술관 관장이기도 한 그는 15년 전부터 헤이리에 살며 정원을 가꾸었다. 그림을 그리는 일, 관장 직무를 수행하는 일이 본분이지만 정원가꾸기도 천분인 양 공을 들였다. 과수원집 딸로 자란 덕에 유년 때부터 풍부하게 경험한 초목의 아름다움에 대한 선망과 호감이 노년까지 이어져서다. 게다가 나무와 꽃에 담긴 자연의 뜻과 숨결을 대변하는 게 예술이지 않은가. 화가인 그에게 정원은 자연이 축약된 소우주이자 사색의 오솔길이리라. 그는 굴참나무가 거침없이 죽죽 뻗어나가기를 염원할 게다.

희로애락을 녹여 참자유를 찾고 싶었다

백순실은 '동다송'(東茶頌) 연작으로 유명한 작가다. 백순실이라는 이름을 몰라도 '동다송'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다. 그만치 널리 회자된 역작이다. '동다송'은 조선 후기의 고승이자 다도의 명인 초의선사가 쓴 불후의 명작이다. 시정과 영감에 넘치는 문장으로 차의 모든 걸 이야기했다. 백순실은 일찍부터 다도에 입문해 조예를 키웠으며, 30여 년 전부터 차의 정신을 테마로 한 회화 창작에 주력했으며, 그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지지하는 초의의 '동다송'을 연작 제목으로 차용했던 것이다.

초의가 '동다송'에서 갈파한 다론(茶論)의 요체는 간명하다. 좋은 물을 얻어 좋은 차를 마시면 도통할 수 있다는 거였다. 제법(諸法)이 불이(不二)하니 차와 선(禪)이 둘이 아니라 했다. '동다송'에 꽂힌 백순실의 창작 지론도 비슷하다. 차 그림을 통해 '내 안의 희로애락을 다 녹여 참자유를 찾고 싶었다'는 게 아닌가. 해서 날마다 차를 마시듯, 날마다 차를 그렸다. 차의 향기, 빛깔, 감성은 물론 다도의 정신성을 캔버스에 담았다. 흙 마당을 닮은 갈색톤을 바탕색으로 깔고, 고도의 은유와 상징으로 걸러진 묘사로 다도를 그렸다. 차를 즐기는 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거실에 걸어두고 싶은 작품인지라 잘 팔리기도 했다. 이래저래 백순실은 오나가나 '동다송 작가'라는 소리를 듣는다. 블루메미술관의 건축적 지향 역시 그의 '동다송'을 형상화하자는 데에 두었다.

2005년 건축가 우경국이 디자인한 블루메미술관은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주제로 한 친환경 건축으로 2006년 '대한민국 건축상'을 수상했다. 미술관의 이름 또한 건축물의 상징인 굴참나무의 학명 '블루메'에서 따온 것이다.

지난 2013년의 개관 이래 블루메미술관은 다수의 기획전을 펼쳤다. 특기할 만한 건 정원, 또는 자연을 테마로 한 전람회가 잦았다는 점이다. 굴참나무와 꽃밭이 단순히 시각적 심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미술관의 정체성까지를 표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다. 즉, 이 미술관은 정원이라는 인위적 자연의 가치가 미술 행위를 통해 어떻게 조형화되는지 알게 하는 전시회 기획을 역점으로 삼아왔다. 마른 멸치대가리처럼 수척한 우리네 일상이 정원의 생기발랄로 보완되는 양상을, 삶과 자연이 결합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에너지의 실상을 미술작품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획전을 거듭해왔던 거다. '나무와 만나다', '정원사의 시간', '정원놀이' 같은 타이틀로 펼쳐졌던 전시회가 그것들이다.

현재 진행되는 기획전 이름은 '재료의 의지-정원에서의 대화'전(展)이다. 최병석, 제닌기, 김지수, 이 세 작가가 참여했다. 간소한 재단으로 합판의 형용을 심드렁히 조형하고서 '피곤한 사각형'이라 제목을 붙인 최병석의 작품은 이상하고 재미있다. 인조머리카락과 인조손톱까지 재료로 끌어들인 제닌기의 설치작품은 섬뜩하고 기발하다. 그런데 '재료의 의지'라는 전시 타이틀은 아무래도 아리송하다. 좀 쉽고 선명한 타이틀이라면 한결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 텐데.

미술 기획전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아동들을 위한 '미술관 속 미생물'은 미생물 눈에 바라보이는 세상을 상상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년 가드너 김석원(보타니컬스튜디오삼 대표)이 주도하는 성인 대상의 워크숍 '서로 재료 읽기 연습'은 미술관 정원을 산책하며 진행한다. 이번 기획전과 프로그램들은 12월 27일까지 계속된다.

미술관 정원에 내려앉은 가을로 시나브로 풀들이 저물기 시작한다. 가을을 반색하는 가을꽃들은 희거나 연푸른 꽃떨기를 살랑거린다. 피거나 시들거나, 그저 그렇게 순환할 따름인 초목들은 저마다 순리를 두런거리는 철학자들이다. 누구였더라, '모든 것이 예술'이라 말한 이. 블루메미술관에 머문 한나절, 예술과 노닐어 남은 허기가 없다. 말라가는 가을 풀들의 눈짓과 몸짓은 기억해둘 만한 그림이고.

글/ 박원식 객원기자 bravopress@
사진/주민욱 프리랜서
minwook19@hanmail.net

BIG BaNG®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 뱅

고반발 클럽 설계 기술과 경량화 기술은 이미 타사와 초격차의 기술 우위 에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st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 2nd Shot 세계 최고 고반발 우드 + 3rd Shot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 100yd 증가

PAR 5 3rd shot 까지 합계

뱅골프클럽으로 100yd 더 나가도록 세계적인 프로들이 도와드립니다!

클럽구매 선택에서부터 클럽스펙수정, 필드 레슨까지

최대의 비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골퍼에게 최적화된 스펙의 클럽이 필요합니다
레슨실력과 첨단 과학적 프로그램으로 스윙분석을 잘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골프 클럽 지식까지 겸비한 세계 BEST 100프로가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김주미 (LPGA 1승, KLPGA 3승, KLPGA대상/최우수선수상/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SBS골프 방송), **김혜윤**(KLPGA 5승, SBS골프아카데미방송, KLPGA K10클럽 수상), **박소영** (KLPGA 3승, 국가대표 코치), **송보배** (LPGA1승, JLPGA 2승, KLPGA 5승, LET 1승, KLPGA대상/상금왕/신인상/최저타수상 4관왕, JTBC골프 방송), **송경서** (JTBC골프 해설위원/라이브레슨 방송), **양제윤** (KLPGA 2승, KLPGA 대상), **이병윤** (JTBC골프 라이브레슨, 수원여대 골프교수), **이지영** (LPGA 1승, KLPGA 2승), **이현** (JTBC골프 라이브레슨, 경찰대/경성대 골프교수), **염동훈** (KPGA 최우수지도자상, 주니어선수/투어프로 코치 선호도1위), **장활영** (SBS골프/JTBC골프 중계, 한국골프대/가천대 골프교수), **조영란** (KLPGA 2승), **최우리** (KLPGA 1승, KLPGA 최우수선수상, SBS골프/MBC 방송), **허석호** (KPGA 2승, JGTO 8승, KPGA대상, 골프다이제스트 선정 베스트 교습가 1위, SBS골프아카데미 방송), **문현희** (KLPGA 2승, 인하대 스포츠심리학 박사수료, SBS골프 및 JTBC레슨 방송), **이정연** (KLPGA 1승, KLPGA 신인상, 우수선수상,한국골프대학 교수, SBS골프 레슨방송, LPGA 9H 최저타수 28타), **이승호** (KPGA 6승, JGTO 신인상), **김나리** (JLPGA 2승), **신준** (미 PGA Certified Professional, JTBC 골프 레슨 방송, JTBC 골프 해설위원)

세계 어느 기업도 도전하지 않고 따라 하기도 힘든
최적화 기술을 실현 시키고 있습니다

- 드라이버를 100m밖에 못 보내는 분도 쉽게 스윙 할 수 있는 타사 대비 30% 더 가벼운 무게의 클럽부터 400m장타자가 사용하는 무거운 클럽까지
- 아주 부드러운 R6강도의 샤프트로 된 클럽부터 3X강도의 강한 샤프트로 된 클럽까지

999,000가지 스펙중에서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클럽을
PGA 정상급 프로가 사용하는 클럽을 제작해주는 시스템 그 이상으로 VIP 고객의 클럽을 만들어 드립니다

최적화된 뱅골프 클럽으로 100대 프로의 필드 레슨 신청 접수중 | 국내 최고 수준의 실력있는 프로,피터, 골프 클럽 전문가 모집중

BIG BaNG® (주)뱅골프코리아 | 대표전화 1544-8070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 1층 | www.banggolf.co.kr

‘취향 저격’ 소비자 소통 넘어 교감

2020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의 시발점이었다. 환경 파괴가 가져온 코로나 19로 인해 친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또한 크게 변화했다. 이런 대격변의 흐름 속에서 2020년 광고 시장은 친환경적이고, 내면의 삶을 추구하는 따뜻한 광고들과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신기술들로 채워졌다.

기업들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광고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소통이 필요할 때 광고를 매개로 소비자와 대화를 나눈다. 이투데이2020 광고대상은 올 한해 쏟아진 수많은 광고 가운데 소비자와 소통을 넘어 교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투데이 2020 광고대상’ 영예의 대상은 SK텔레콤의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가 선정됐다.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는 대한민국 5000만 국민 중에 단 한 명, 당신을 위한 초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SK텔레콤의 철학과 신념이 잘 담겼다.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국민 하나 하나를 생각하는 고객지향형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잘 담긴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PR대상수상작인 SK의 ‘OK!-SK 캠페인’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잘 담았다. 특히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쓰고, 비닐 대신 에코백을 애용하는 세대들의 행동들을 보여줌으써 국민 모두가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공감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2020 이투데이 광고대상 수상 기업

구분	상명	광고주	출품명
대상	종합대상	SK텔레콤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기업PR대상	SK㈜	OK! SK – 캠페인
본상	금상	아모레퍼시픽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골드
	은상	코웨이	공기청정기 – 에어 매칭 필터
	동상	KB금융그룹	세상을 바꾸는 금융
부문별 최우수상	기업PR	DB금융네트워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카드	신한카드	신한 Payfan ‘소비 마마’

종합 대상

SK텔레콤

5000만명의 초시대 ‘남다른 도전’

김 희 섭
PR실장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혁신과 기술도 지금 당신의 삶에 가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일까요? SK텔레콤은 초시대의 모습은 하나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두의 초시대가 아니라 고객 한 명 한 명의 취향이 다른 것처럼, 한 명 한 명의 초시대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취향만큼 SK텔레콤의 모습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신은 물론 AI, 보안, 커머스, 미디어 등 다양한 IC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외 우수 기업과 초협력을 통해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르게 살아가는 고객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고, 고객 여러분이 살아가는 다양한 초시대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 위해 SK텔레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만들어진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 캠페인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 중에 단 한 명, 당신을 위한 초시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당사의 철학과 신념을 표현하기 위해 1/5000만이라는 수학적 의미를 담아 제작했습니다. 올해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당사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고객 한 명 한 명의 초시대를 만들고, 더 나아가 사회적 이슈까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ICT 기업으로의 큰 역할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전에 없던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통해 모두에게 각자의 초시대를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고객과 사회의 행복을 위해, 생활 속 모든 영역에 변화를 끌어내고자 하는 SK텔레콤의 노력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의 초시대를 만들기 위해 5000만 개의 SK텔레콤이 되겠다고 약속합니다.

기업PR 대상

SK㈜

‘선한 영향력’ 세상을 바꾸는 큰 힘

홍 경 표
브랜드 담당

SK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은 지속 가능한 사회에서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우리 모두의 더 큰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OK! SK 캠페인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I am 인플루언서’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OK! SK 캠페인은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크고 작은 실천들이 곧 ’사회적 가치‘이며, 이를 실천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곧 우리 스스로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선한 영향력’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MZ세대가 이번 OK! SK 캠페인의 주인공입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쓰고, 비닐 대신 에코백을 애용하는 등 MZ 세대들의 선한 영향력을 응원하는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한다면 우리 사회에 선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MZ 세대를 타겟으로 한 만큼 올해 OK! SK 캠페인은 사전 기획 단계에서부터 MZ 세대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습니다. ‘사회적 가치’라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개념을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MZ 세대는 물론, 다양한 세대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 PR 광고에서는 볼 수 없었던 톡톡 튀는 일러스트와 뮤직비디오를 연상시키는 감각적인 편집 기법을 활용하여 공감대를 더욱 높였습니다.

SK는 OK! SK 캠페인을 통해 지난 1998년부터 20여 년 넘게 우리 사회의 다양한 ‘행복’을 일관된 테마로 전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SK는 우리 사회의 더 큰 행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투데이 광고대상 수상의 영광을 주신 이투데이 독자 여러분과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 사 평

성 동 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코로나 시대’ 독자와 교류 지속 新기술·인간 상호관계에 초점

올 한해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구촌 전체의 모든 시스템들이 뒤엉켜 버린 혼란의 여정이었다. 그동안 제4차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대전환과 같이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제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변화를 주도하며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면, 코로나 19는 현대문명사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의 상황들을 연출했다. 특히 국가간의 교류에서부터 개인간의 소통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엮어온 직접적인 방식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 이 자리를 파편화된 개인화와 비대면적 일상이 대체해 버렸다.

이러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사회 구성원간 커뮤니케이션을 매개해 주는 미디어의 역할은 이전보다 더 중요해 졌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고, 비대면 상황에서의 일과 여가가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은 TV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미디어에 더욱 많이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언택트 미디어 소비에 적합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Over the Top)는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신문과 방송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산업은 광고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최악의 한해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투데이는 2011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광고대상을 계속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광고주뿐만 아니라 독자들과의 다양한 교류를 지속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인류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각종 산업이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광고대상 역시 이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발전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담아낸 작품을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심사작품의 대상분야 중에서 종합대상은 SK 텔레콤의 ‘당신의 초시대를 만듭니다’를 선정했다. 기술의 진보속에서 소외되기 쉬운 인간의 소중함을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 주었다. 기업PR대상은 SK(주)의 ‘I am 인플루언서 - SK 캠페인’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크고 작은 실천들이 곧 사회적 가치이며, 이를 실천하는 국민들이 바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잘 표현한 점이 돋보였다. 본상은 세 작품을 선정했는데, 이 중 금상인 아모레퍼시픽의 ‘바이탈뷰티 메타그린’, 은상인 코웨이의 ‘공기청정기 에어매트필터’, 동상인 KT금융지주의 ‘세상을 바꾸는 금융’ 역시 이번 광고대상의 심사기준에 부합되어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문상을 수상한 신한카드의 신한페이판 〈소비마마〉에게도 축하인사를 전한다.

다시 한번 지난 10년간 열정적으로 광고대상을 이끌어 오고 있는 이투데이의 열정에 감사와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한다.

고객 심신·라이프 스타일 연구 분석

금 상

아모레퍼시픽

이희복
전무

바이탈뷰티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건강함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브랜드입니다. 바이탈뷰티의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솔루션은 오랜 기간 사람들의 심신과 라이프스타일을 관찰하고 분석해 완성되었습니다. 이너뷰티 솔루션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을 거듭해 개인마다 최적화된 제품을 제공하는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 솔루션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바이탈뷰티의 대표제품 중 하나인 '메타그린 골드'는 잦은 외식으로 인한 밥, 라면, 빵 등 고탄수화물, 고당류, 고지방 위주로 문제적 식습관에 노출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개발된 프리미엄 녹차 정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체지방 감소 및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줘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대사 관리가 가능하여 즐거운 식사가 끝난 이후에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 맞춤 필터' 효용성 전달

은 상

코웨이

심병희
마케팅 실장

코웨이의 '집에 맞춰 상황에 맞춰, 에어매칭필터' 인쇄광고가 이투데이 광고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웨이 공기청정기 에어매칭필터는 고객의 생활환경, 가족 구성원, 계절 등에 따라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해, 상황에 따라 최적의 청정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필터를 제공하는 코웨이만의 차별화된 서비스입니다. 코웨이는 2개월 마다 각각의 상황에 맞춰 최적의 에어매칭필터를 선택하고 교체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내 공기를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에어매칭필터 광고는 각기 다른 상황별로 맞춤 필터의 효용성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일상 속 집중 케어가 필요한 순간들을 직관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코웨이는 지난 30년간 축적해온 1등 기술력과 서비스 경쟁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혁신을 선도하며 대한민국 대표 청정가전 전문기업만이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그룹의 가치 담아

동 상

KB금융그룹

정문철
상무

KB금융그룹이 '이투데이 광고대상(기업PR부문)' 을 수상하게 돼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KB금융은 급변하는 금융산업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리딩금융그룹으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KB금융은 금융 혁신을 주도하는 리딩금융그룹으로서 금융을 통해 고객의 행복한 삶의 실현을 돕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그룹의 미션"세상을 바꾸는 금융"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2020년 PR광고 또한 그룹 미션 "세상을 바꾸는 금융"이라는 주제하에 혁신적인 금융 플랫폼 서비스는 물론, 금융권 최초로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Liiv M(리브모바일)"이동통신 서비스 등 고객의 생활 가치를 높여주는 KB금융그룹만의 서비스들을 소재로 고객의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고 함께 성장하겠다는 그룹의 가치를 담대하게 담아냈습니다.

사극·유머코드 통해 '현명한 소비' 유도

카드 최우수상

신한카드

윤승원
브랜드기획팀장

수 많은 광고 중에서 신한카드 신한페이판 '소비마마' 광고를 수상작으로 선정해주신 것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카드업계 대표 플랫폼인 신한페이판을 앱카드 본연의 기능인 결제·금융 서비스에 집중하면서도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솔루션에 의한 고객 맞춤 혜택을 강화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인쇄광고는 마이데이터 시대에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신한페이판의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늘' 고객의 삶을 함께하며 관리해 드린다는 의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금융사 광고로는 이색적인 사극 형식과 유머코드를 담아 소비자들로 하여금 궁금증과 함께 현명한 소비를 돕는 생활밀착형 플랫폼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표현했습니다. 앞으로도 신한카드는 혁신 DNA를 바탕으로 고객의 모든 순간에서 늘 모아주고, 늘 아껴주며 늘 관리해 주는 신한카드만의 금융기술 '늘테크'를 통해 고객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UNTACT 시대의 슬기로운 금융생활

슬기로운 금융 TIP

메인 화면에서 바로 되는 **타행 계좌 간편 조회**	메인 화면에서 바로 보는 **내 계좌 총 잔액**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잔액 표시 On-Off**	메신저 복사로 **계좌번호 자동입력**

우리WON뱅킹 다운로드 하기

• 우리WON뱅킹 앱은 AOS 4.3 이상, iOS 9.0 이상 사용 가능하며,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 일부 타행 사정에 의해 시간에 제약을 받는 서비스(오픈뱅킹 등)가 존재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www.wooribank.com)를 참조하시거나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10.27 준법감시인-2438 심의필(유효기간 : 2021.09.15)

"축구의 전설이여 안녕"…"언젠가 하늘에서 함께 공 찰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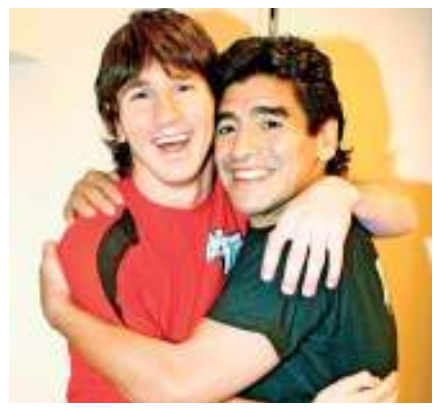
〈리오넬 메시〉 〈축구황제 펠레〉

1986년 멕시코 월드컵 결승전에서 서독을 3-2로 꺾고 우승하며 골든볼 수상.

멕시코 월드컵 A조 1차전에서 마라도나를 거칠게 수비하는 허정무. 아르헨티나의 3-1 승리.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 축구팀 감독을 맡은 마라도나.

1987년 6월 10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이탈리아와 아르헨티나의 경기 중 펠레와 함께.


2005년 8월 29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난 마라도나와 메시.

'신의 손' '축구의 신' '축구의 전설'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

그 어떤 수식어로도 찬사가 부족한 축구 영웅 디에고 마라도나가 영원히 그라운드를 떠났다. 20세기를 풍미한 축구 영웅의 부음에 그의 조국 아르헨티나는 물론이고 전 세계 축구 팬들이 슬픔에 잠겼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마라도나는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 티그레 자택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다. 향년 60세. 그는 3일 경막하혈종으로 수술을 받고 11일 퇴원해 회복 중이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와 응급조치를 했으나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아르헨티나 리그 역사상 최연소로 데뷔한 마라도나는 펠레와 요한 크루이프, 프란츠 베켄바워,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와 함께 20세기 축구 역사에 일획을 그은 스타였다. 1960년 10월 30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빈민가에서 3남 4녀의 장남으로 태어난 마라도나는 3살 때부터 '축구 신동' 소리를 들었다. 16세에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에서 프로선수로 데뷔해 보카 주니어스, FC 바르셀로나, SSC 나폴리 등에서 뛰었다. 특히 그는 창단 이후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던 나폴리를 두 차례 리그 정상에 올려놓고, UEFA 우승을 이끄는 등 역사에 남을 활약을 펼쳤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견인해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다.

마라도나, 심장마비로 별세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우승
아르헨티나의 축구 영웅
'신의 손'·약물 복용 오명도

그는 화려한 이력만큼이나 악동으로도 유명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당시 아르헨티나와 잉글랜드의 8강전 때다. 마라도나는 심판이 안 보는 사이 자신의 손을 맞고 골대 안으로 들어간 공이 골로 인정되자 "내 머리와 신의 손이 만들어낸 골"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그에게는 '신의 손'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이 별명은 그에게 '명성'과 '악명'을 동시에 안겼다. 나중에 그는 "의도적으로 손을 뻗었다"고 시인했다.

코카인과 알코올에 중독된 1980~1990년대는 그의 축구 인생에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그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뛰던 1992년 코카인 복용 사실이 드러나 15개월간 자격 정지를 당했다. 이후 1994년 2월 아르헨티나 별장에서 기자들에게 공기총을 발사해 파문을 일으켰고, 그해 말 미국 월드컵 때 도핑 테스트에서 적발돼 중도 귀국해야 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자 에너지를 높이거나 체중 감량을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한 결과다. 2004년 4월 심장 이상으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오랜 투병 생활이 시작됐다.

전세계 축구팬 추모 물결
아르헨, 3일간 국가애도기간
"당신이 존재해주어 감사하다"
교황청 홈피 '축구의 시인' 평가

축구 영웅 마라도나를 잃은 아르헨티나는 슬픔에 잠겼다.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3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당신은 우리를 세계 정상으로 데려갔다. 당신은 우리를 믿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하게 했다. 당신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사람이었다. 존재해주어 감사하다"고 조의를 표했다.

전 세계는 마라도나의 죽음에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마라도나를 기리기 위해 이번 주에 열리는 모든 유럽 리그 경기에 앞서 1분간 묵념하겠다고 밝혔다. 알렉산더 체페린 UEFA 회장은 "그는 축구를 빛나게 만든 인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고 애도했다.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마라도나를 잇는 스타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는 그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직후 "전설이여 안녕"이라며 그의 사진을 올렸다. 이어 "모든 아르헨티나인과 축구인들에게 슬픈 날"이라며 "그는 우리를 떠났지만, 떠나지 않은 것이기도 하다. 디에고는 영원하다"고 전했다. 메시와 마라도나는 2010년 아르헨티나 국가대표팀의 선수와 감독으로 함께 호흡을 맞췄다. 현직으로 활동한 시기는 달랐지만, 세기의 라이벌로 꼽힌 브라질의 축구 전설 펠레는 "나는 사랑하는 친구를 잃었고 세상은 전설을 잃었다"며 "분명히 언젠가 하늘에서 우리가 함께 공을 찰 것"이라고 애도했다.

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마라도나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때와 마찬가지로 그를 위해 기도했다"며 "교황은 그를 만났던 일을 떠올렸다"고 했다. 교황청 공식 웹사이트는 마라도나를 가리켜 '축구의 시인'이라고 평가했다. 최혜림 기자 rog@·사진 외신종합

NYT '21세기 최고 배우 25인'

송강호·김민희 선정

배우 송강호〈왼쪽 사진〉와 김민희〈오른쪽〉가 미국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21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배우 25명에 이름을 올렸다.

25일 뉴욕타임스는 '에디터스 픽'으로 지난 20년간 가장 위대한 연기를 선보인 배우 25명의 이름과 이유를 소개했다. 이 명단에 한국 배우로는 김민희, 송강호가 이름을 올렸다.

뉴욕타임스는 송강호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기생충'으로 미국 관객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봉준호 감독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살인의 추억'의 시나리오를 쓰며 송강호를 캐스팅하리라 단단히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 역할을 위해 태어났고, 이 영화는 그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라고 첫 만남 당시를 회상했다. 김민희는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와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를 통해 소개됐다. 뉴욕타임스는 "홍 감독은 인간의 불완전함에 민감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김민희의 명쾌한 표현력이 영화를 아름답게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뉴욕타임스는 송강호, 김민희 외에 덴젤 워싱턴, 이자벨 위페르, 다니엘 데이 루니스, 키아누 리브스, 니콜 키드먼, 줄리앤 무어, 호아킨 피닉스, 틸다 스위튼 등을 '21세기에 가장 위대한 배우'로 꼽았다.

유정선 기자 dwt84@

인사

◆해양수산부 ◇과장급 승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박성동 ◇과장급 전보 △해양정책실 해양정책관 해양개발과장 구도형 △해양정책실 국제협력정책관 국제협력총괄과장 유은원 △국립해양조사원 운영지원과장 안완수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 류승규

◆LG그룹 • ㈜LG ◇사장 승진 △이방수 사장 CSR팀장 ◇부사장 승진 △정현옥 부사장 경영혁신팀장 ◇전무 승진 △박장수 전무 △이재원 전무 통신서비스팀장 ◇상무 선임 △김성기 상무 △이종근 상무 • LG전자 ◇사장 승진 △이상규 한국영업본부장 ◇부사장 승진 △노진서 CSO부문 산하 △백승태 리빙어플라이언스사업부장 △오세기 H&A연구센터장백승태 리빙어플라이언스사업부장 ◇전무 승진 △곽도영 H&A해외영업그룹장 △김동욱 CTO DXT센터장 △오세천 홍보담당 △우종진 BS연구소장 △유병헌 정도경영센터장 △유성준 노경담당 △이재현 SAC사업담당 △이정석 HE마케팅커뮤니케이션담당 △이충환 TV해외영업그룹장 ◇상무 승진 △구지영 글로벌마케팅센터 MI담당 △김건우 CTO 서비스플랫폼담당 △김남수 중남미경영관리담당 △김명욱 IT모니터개발실장 △김석규 생산기술원 선행생산기술연구소장 △김우섭 공정거래Compliance Task리더 △김태훈 이집트법인장 △김형태 중남유럽법인장 △민홍기 VS경영전략담당 △박민호 MC기구개발실장 △박상현 미국서비스법인장 △박재성 한국 시스템수도권담당 △박정원 몬테레이생산법인장 △박충현 BS경영관리담당 △박태인 리빙어플라이언스제어연구담당 △백선필 TV상품기획담당 △서정원 업무혁신담당 △송계영 키친어플라이언스연구소장 △송영한 CTO 특허센터 Task1리더 △송익환 대만법인장 △안혁성 ESS사업담당 △오승진 한국 전략담당 △오해진 VS스마트PMO △우덕구 VS품질경영담당 △우정호 MC카메라개발실장 △이동언 에어솔루션중아/아시아영업담당 △이석수 CTO SIC센터 SoC솔루션PMO △이소연 TV모듈러개발리더 △이용찬 생산기술원 모듈기술개발담당 △이원철 CSO사업개선담당 △이한욱 VS 스마트SW개발담당 Core Technology개발리더 △이현규 금융담당 △이호영 LG사이언스파크 통합지원담당 △임대진 BS연구소 융복합솔루션실장 △임병록 전략법무실장 △임정수 한국 전략수도권담당 △정영학 레반트법인장 △정욱준 H&A디자인연구소장 △정인식 평택안전환경/지원담당 △조협 한국 렌탈케어링사업센터 사업기획/지원담당 △하건호 청소기사업담당 △홍성혁 HE SCM담당 △홍진기 글로벌물류담당 • LG화학 ◇사장 승진 △손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 ◇부사장 승진 △김성민 CHO △김정대 정도경영담당 △정근창 LG에너지솔루션 Battery연구소장 △김수령 LG에너지솔루션 품질센터장 ◇전무 승진 △서중식 PO사업부장 △심규석 ABS사업부장 △김상민 아크릴/SAP사업부장 △조준형 첨단소재.신사업개발담당 △윤수희 Specialty Care사업부장 △박준성 대외협력총괄 △신영준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장 △서원준 〃 소형전지사업부장 △최석원 〃 LGESWA법인장 △박해정 〃 CHO △성환두 〃 대외협력총괄 ◇상무 신규 선임 △이재명 △김향명 △신인호 △이동철 △주은정 △최호열 △이준호 △정철호 △김도균 △이상협 △LG에너지솔루션 이수형 △〃 Denny Thiemig △〃 최제원 △〃 오성환 △〃 김병습 △〃 강성모 △〃 임정환 △〃 박필규 △〃 성기은 △〃 최재용 △〃 조지훈 △〃 김경훈 △〃 이상현 △〃 남주현 ◇수석연구위원 승진 △이동훈 • LG유플러스 ◇CEO △황현식 컨슈머사업총괄 ◇부사장 승진 △박형일 CRO △현준용 홈플랫폼추진단장 ◇전무 승진 △김새라 마케팅그룹장 △양효석 CHO △여명희 경영기획담당 △이상엽 기술개발그룹장 ◇상무 신규 선임 △고은정 씨에스원파트너 대표이사 △박수고객가치혁신담당 △배은옥 클라우드기술담당 △염상필 홈IoT상품담당 △임방현 글로벌/미디어영업담당 △임성준 기간망담당 △정소이 빅데이터담당 △정영훈 금융영업담당 △정철 서부소매영업담당 • LG헬로비전 ◇상무 선임 △박은정 미디어사업담당 △최효락 인사담당 • LG CNS ◇전무 △하태석 DTO사업부장 △최문근 CTO ◇상무 △이영미 이행혁신부문 클라우드인프라운영담당 △이호군 이행혁신부문 개발혁신센터장 △이주열 CTO D&A 연구소장 • LG생활건강 ◇부사장 승진 △이형석 뷰티사업부장 ◇전무 승진 △장기룡 CHO ◇신규임원 선임 △지혜경 중국디지털사업부문장 △강연희 색조연구소장 △공병달 물류총괄 △유영복 뷰티크리에이티브부문장 △김인철 뷰티생산총괄 • LG이노텍 ◇전무 승진 △구한모 DS(Display Solution)사업담당 △김창태 CFO ◇상무 승진 △고대호 베트남생산법인장 △김민규 기반기술연구소장 △유인수 전장부품사업담당 △임준영 TS(Tape Substrate)개발팀장 △조성환 품질경영센터장 ◇전입 △전무 이창엽 경영진단담당 • LG상사 ◇전무 승진 △민병일 최고재무책임자(CFO) ◇상무 신규 선임 △이상무 에너지개발담당 △조은형 금융담당 • LG하우시스 ◇상무 신규 선임 △권상무 주방욕실 사업부장 △임석규 특판담당 △박영태 품질담당 • 실리콘웍스 ◇사장 승진 △손보익 사장 실리콘웍스 CEO • 지투알 ◇상무 선임 △김동현 △송광륜 △이상권 • 판토스 ◇상무 신규선임 △유럽사업담당 최진형 • LG공익재단 ◇부사장 승진 △정창훈 부사장 LG공익재단 대표

◆롯데그룹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승진〉 ◇롯데그룹 식품BU장 사장 이영구 ◇롯데푸드㈜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이진성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장 부사장 황범석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황진구 ◇롯데지주㈜ 경영혁신실장 부사장 이훈기 ◇롯데지주㈜ 커뮤니케이션실장 부사장 고수찬 ◇롯데칠성음료㈜ 대표이사 내정 전무 박윤기 ◇㈜부산롯데호텔 대표이사 내정 전무 서정곤 ◇롯데상사㈜ 대표이사 전무 정기호 ◇LC USA 대표이사 내정 전무 손태운 ◇롯데베르살리스엘라스토머스㈜ 대표이사 내정 상무 황대식 〈대표이사 및 단위조직장 보임〉 ◇롯데미래전략연구소㈜ 대표이사 내정 부사장 임병연 ◇롯데지주㈜ 준법경영실장 부사장 박은재 ◇롯데지알에스㈜ 대표이사 내정 전무 차우철 ◇롯데쇼핑㈜ 마트사업부장 전무 강성현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 전무 노준형 ◇LC Titan 대표이사 내정 전무 박현철 ◇롯데네슬레코리아㈜ 대표이사 내정 상무 김태현 〈승진〉 ◇롯데제과 △전무 정재웅 △상무 배성우 박경섭 △상무보 허정규 송경원, Khayyam Rajpoot ◇롯데칠성음료 △상무 나한채 이덕용 △상무보 정용주 서지훈 송효진 ◇롯데푸드 △상무 류하민 △상무보 이석원 류학희 ◇롯데지알에스 △상무보 이승주 이원택 ◇롯데중앙연구소 △상무보 장종태 ◇대홍기획 △상무보 안세훈 ◇롯데백화점 △전무 김대수 △상무 최영준 △상무보 차용경 서용석 이주영 ◇롯데마트 △상무보 김영구 조정욱 ◇롯데슈퍼 △상무보 강호진 박우진 ◇롯데하이마트 △상무 이찬일 △상무보 김시호 서강우 ◇코리아세븐 △상무 이정윤 △상무보 문대우 ◇롯데홈쇼핑 △상무 신성빈 △상무보 윤지환 김덕영 ◇롯데멤버스 △상무보 정란숙 ◇롯데글로벌로지스 △상무보 정석기 ◇롯데정보통신 △상무 고두영 △상무보 조덕길, 이진호 ◇호텔롯데 △상무보 권혁범 ◇롯데면세점 △상무 박성훈 △상무보 이영직 한정호 ◇롯데렌탈 △상무 이강산 △상무보 박세일 ◇롯데물산 △전무 정호석 △상무보 신창훈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상무보 최재호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상무 김우찬 배광석 △상무보 김광영 곽기섭 박세호 ◇롯데케미칼 첨단소재사업 △전무 신성재 △상무 성낙선 △상무보 권기혜 ◇롯데정밀화학 △상무 주우현 △상무보 정명근 ◇롯데건설 △전무 신치호 △상무 김종수 △상무보 박기태 장성재 이상광 강윤석 류현일 ◇롯데알미늄 △상무보 손병삼 ◇롯데액셀러레이터 △상무보 이종훈 ◇롯데인재개발원 △상무보 변영오 ◇롯데지주 △전무 손희영 △상무 김승욱 김원재 △상무보 송의홍 임태형 강성두

◆코오롱그룹 〈대표이사 내정〉 ◇㈜코오롱 △대표이사 부회장 안병덕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대표이사 사장 △유석진 〈임원승진〉 ◇㈜코오롱 △전무 옥윤석 △상무 안상현 이수진 ◇코오롱인더스트리 △부사장 강이구 박태준 △상무 권용철 박준효 △상무보 공원석 김호연 이민혁 임동훈 최종욱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 △상무보 김정훈 지성국 ◇코오롱글로벌 △부사장 이규호 △전무 송혁재 △상무 김일호 정시환 △상무보 김태정 류시성 박재민 박창규 이상만 ◇코오롱글로텍 △대표이사 사장 김영범 △전무 김효순 △상무 김정호 ◇코오롱플라스틱 △상무 박은하 △상무보 이상엽 ◇코오롱오토모티브 △상무보 김명진 ◇그린나래 △대표이사 사장 이정윤 〈전보〉 ◇코오롱인더스트리 △상무 박규대 △상무보 전용주 ◇코오롱글로벌 △전무 임성빈 ◇코오롱플라스틱 △전무 박문희

◆아산의료원 〈승진〉 △아산의료원 의료원장 박성욱 △서울아산병원 병원장 박승일 △홍천아산병원 병원장 남기호

◆데일리스포츠한국 ◇신규 △미디어영상국 국장 현경학 ◇승진 △편집국 편집부 부국장 이수경 △편집국 편집부 부장 한민정

김수완의 복지플랫폼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고령사회의 부모 돌봄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복지가 소수의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는 기존의 사고틀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에서 마주하는 유사한 과제를 혼자의 문제인 것처럼 각자 무겁게 짊어지고 외롭게 살아갈 일이 아니다. 복지국가는 우리가 살아가며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공통된 필요를 공동으로 해결해가는 대화의 장이다.

어쩌다 복도에서 마주친 동년배 동료와 가벼운 인사를 주고 받는다. 평소 같으면 한두마디 오간 후 각자 바쁘게 갈 길을 갔을 것이다. 그런데 병원에서 부모님 간병으로 한동안 정신없었다는 내 한마디에, 동료는 얼마나 힘들었느냐며 깊은 공감의 마음을 건넨다. 알고 보니 동료의 아버지가 작년에 암투병을 하시고, 어머니는 파킨슨병으로 혼자서는 걷기도 어렵고 일상생활을 하실 수 없게 되신지 몇 년 되었다는 것이다.

부모님이 서로를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보다 못한 자식이 나설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혼자 부모 돌봄을 떠맡아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장기요양돌봄을 제공해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고, 사회복지사가 와서 어머니의 제반 상태를 점검하고,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등급 판정을 받으시기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되면서 이제 동료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집앞까지 오는 셔틀을 타고 노인주간보호센터에 가신다. 저녁엔 요양보호사가 집에 방문하여 두 시간을 더 챙겨준다. 이렇게 해서 편찮으신 부모님 두 분이 한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재가요양 체계가 갖춰지고 나서야 동료는 좀 살 것 같더라고 했다.

얼마나 많은 가족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까? 201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동료의 어머니처럼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게 된 노인은 약 77만명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9.6%에 달하고, 해마다 15% 이상 증가하고 있다. 노인 돌봄의 부담을 크게 덜게 되는 가족들까지 고려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혜자는 수백만 명인 셈이다.

이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혹은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장기간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장기요양은 한번 발생하면 임종 때까지 긴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노동강도가 높기 때문에, 개별 가정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다. 소득계층과 관계없이 이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신청한다고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증이 아니면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다들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이 제도에 매달 보험료도 내고 있다. 2020년 국민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료의 10.25%으로, 가입자 세대당 평균 1만1424원이다. 내년에는 보험료율이 11.52%로 인상된다. 곧 다가오는 2026년에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를 맞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돌봄 수요와 재정은 매년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가 일찍 시작된 서구의 대응은 어떠할까. 스웨덴은 오랫동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의료와 복지서비스 혜택을 주는 보편적 정책을 펴왔다. 그러다가 1992년 에델개혁을 통해 80세 이상의 후기고령자에게 중점적으로 복지서비스 혜택을 부여하되, 자기 집에서 요양보호를 받는 재가 요양으로 정책방향을 전면 전환했다. 의료·간병서비스를 일원화하면서 비싼 의료서비스 대신 요양간호서비스를 대폭 늘려 더 많은 노인이 손쉽게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같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건강한 노인은 파트타임으로 돌봄이 필요한 후기노인의 돌봄에 참여해 수당을 받는다. 우리처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하는 독일과 일본은 보험을 통해 거동이 불편해지는 노인들에게 노인친화적으로 주거를 개조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살던 집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증노인이 되기 전부터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돌봄의 혜택을 늘리는 동시에 예방과 자립생활을 유도해 장기적으로 재정을 절감하고자 한다.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복지가 소수의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라는 기존의 사고틀을 완전히 깨뜨리고 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에서 마주하는 유사한 과제를 혼자의 문제인 것처럼 각자 무겁게 짊어지고 외롭게 살아갈 일이 아니다. 복지국가는 우리가 살아가며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공통된 필요를 공동으로 해결해가는 대화의 장이다. 그 대화의 시작은 오늘 옆사람에게 부모님은 안녕하신지 안부를 건네보는 것일 수도 있겠다.

이난영의 과학 놀이터

과학 칼럼니스트

미국 신발가게엔 엑스레이가 있었다고?

이때가 오길 기다렸다는 듯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19 탓에 맘껏 '가을 타기'도 쉽지 않은 요즘이다. 그래도 퇴색하고 메마른 나뭇잎들이 바람 한 자락에 '촤르르' 소리를 내며 심하게 흔들리는 걸 보면, 새삼 생각이 많아지고 어깨에 근근이 도달한 햇살의 노쇠함에 순간 울컥하기도 한다.

사람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햇살처럼 우리의 감정 세포를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몸 안을 속속들이 휘젓고 다니면서 '내면'을 여과없이 드러내주는 빛이 있다.엑스레이(X-rays)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지난 11월 8일은 이 엑스레이가 발견된 지 125년 된 날이었다. X선을 최초로 발견한 이는 독일의 물리학자 뢴트겐이다. 1895년 뷔르츠부르크대학 교수였던 뢴트겐은 음극선에 대한 실험을 하던 중, 음극선이 나올 수 없도록 진공관이 완벽하게 밀봉된 상황이었음에도 진공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곳에 놓여있던 형광물질이 밝게 빛나는 현상을 발견한다. 뢴트겐은 음극선이 공기 중에서 겨우 3㎝ 정도밖에 이동하지 못하는 사실에 근거해 수m나 떨어진 책상 위에 놓인 백금-시안화바륨 종이를 감광시킨 건 음극선이 아닌 다른 종류의 빛임을 직감하고, 이를 알 수 없는 선이라는 뜻에서 'X-ray'라고 명명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던 전자가 금속 원자와의 충돌로 그 속도가 급속히 줄어들거나 정지하게 되면 전자가 갖고 있던 운동 에너지의 일부가 매우 짧은 파장을 가진 파동의 형태로 방출되는데, 뢴트겐이 이걸 포착한 거다.

이 미지의 빛을 기록할 방법을 고민하던 뢴트겐은 크리스마스 사흘 전인 그해 12월 22일 아내인 안나를 실험실로 불러 음극선관에서 나오는 미지의 빛으로 안나의 손 사진을 찍는다. 그리고 그는 손뼈와 손가락 반지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이미지를 얻는 데 성공한다. 이 사진 속에서 뼈와 반지는 검정색으로 그 외의 부분은 하얗게 보이는데, 이는 X선의 투과 정도가 몸의 구성 물질마다 달라,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들 물질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뼈처럼 밀도가 낮으면 X선을 거의 통과시키지 않아 빛이 도달하지 못하므로 검게, 근육이나 피부처럼 밀도가 높으면 X선을 대체로 다 통과시키며 밝게 나타난다. 뢴트겐 때와 달리 요즘 엑스레이 장치는 투과가 많이 되면 어둡게, 안되면 밝게 나오도록 반전시킨 사진을 찍어낸다.

X선은 발견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몸속을 찍는 사진기로서 의학 분야에 적극적으로 활용됐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엑스레이 찍기가 192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일종의 취미 활동으로 여겨졌다고 한다. 신발 가게마다 일명 '신발 형광경(Schuh-Fluoroskope)'이라 불리는 이동식 엑스레이 장비가 구비되어 있었고, 이는 주로 새 신발이 잘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이들 발 사진을 찍는 데 사용되었다. 이후 과도한 양의 방사선이 치명적인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차츰 사라지게 되지만, 이 장비로 촬영 때 받는 방사선량이 현대의 엑스레이 장치에 비해 20배 이상 많았다고 하니 참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X선의 발견으로 의학에서뿐 아니라 20세기 초반의 물리학에서도 새로운 도약이 시작됐다. 특히 원자핵 물리학은 X선의 발견과 함께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프랑스의 과학자 베크렐이 우라늄으로부터 나오는 방사선을 발견함으로써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그의 제자 마리 퀴리는 방사선 및 방사능에 대한 연구를 더욱 발전시켰다. 또한 영국의 물리학자 톰슨은 음극선이 '음의 전기를 띤 입자 즉, 전자의 흐름'임을 입증했다. 전자(electron)의 존재는 원자가 내부구조를 가진다는 걸 의미했고,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proton)와 중성자(neutron)가 차례로 러더포드와 채드윅에 의해 발견되면서 핵 물리학은 안정적 궤도에 오르게 된다.

X선의 발견은 그 자체로도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지만, 의학의 관행을 바꿨고 고전에서 현대 물리로 가는 진입로에서도 큰 역할을 했으며 그외 여타 분야의 발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X선의 발견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리샤오룽(李小龍) 명언

"패배하는 법을 배우면 패배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미국명 브루스 리, 전설의 액션스타. 미국에서 태어난 그는 첫 주연작 '당산대형'을 시작으로, '정무문' '맹룡과강' '용쟁호투' 등에 출연해 최고의 액션스타가 됐다. 하지만 서른세 살의 나이에 뇌부종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오늘은 그의 생일날. 1940~1973.

☆ 고사성어 / 단장취의(斷章取義)

문장의 일부분을 끊어서 그 뜻을 취한다는 뜻. 다른 사람의 시문(詩文) 가운데 필요한 부분만을 떼어 그 뜻만 인용하거나 전체의 뜻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해석하여 쓰는 것을 말한다. 연합군이 진(秦)을 칠 때 진(晉)의 대부 숙향(叔向)이 노(魯)나라 경대부 숙손표(叔孫豹)에게 강을 건너야 할지 건너지 않아야 할지를 물어보자, 숙손표가 여인이 물가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정경을 그린 '시경(詩經)'의 한 구절을 인용해 물이 깊거나 얕더라도 강을 건너오라고 한 데서 유래했다.

☆ 시사상식 / 카톡 왕따

카카오톡을 활용한 왕따. '반(班)톡 왕따'가 대표적이다. 반톡을 통해 이루어지는 학교 활동에서 카톡을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을 배제한다. '초대하기'를 계속해 괴롭히는 카톡 감옥도 있다.

☆ 신조어 / 북어

퇴직당하지 않으려고 남아 있다가 퇴직금이나 위로금도 못 받고 쫓겨난 사람.

☆ 유머 / 진주혼(眞珠婚) 선물

아내에게 선물을 사준 적 없는 남편이 "결혼 30년 기념 선물 사주고 싶어요. 갖고 싶은 거 말해보구려"라 했다. 아내가 대답하지 않자 남편은 "다이아몬드반지? 진주목걸이?"라며 다시 물었다. 아내가 "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이혼을 원해요"라고 대답하자 남편의 즉답. "뭐라고? 그렇게 비싼 건 안 돼."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멋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김범근 금융부/nova@

노조추천이사제, 새로운 만남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물건, 하물며 새로운 음식을 먹는 것도 어느 정도 결단이 요구된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갈망하면서도 주춤거리는 이유는 일상의 변화를 불편으로 받아들이는 습성 때문일 것이다. 반면, 익숙한 사람과의 만남은 편안함을 준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안정감을 느낀다. 하지만 편안함은 자칫 나태와 권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미래를 약속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편안함이 주는 유혹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

금융권에선 내년 3월 기업은행에서 첫 노조추천이사제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노조의 경영 참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노동이사제 전 단계 격이다. 보수적인 금융권에서는 아직까지 도입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불안감은 반감만 키웠다. 기업은행 직원들조차 시큰둥한 반응이다. 지금 상황에 만족하는데 굳이 왜 하려는지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는 것이다.

금융회사 사외이사 제도는 줄곧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한 채 방치됐다. 사외이사 자리에 경영진의 측근이 포진돼 있고, 장기간 재직하며 거수기 역할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전관예우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도 비일비재다. 그 결과 금융지주들은 셀프 연임, 채용비리 등 문제가 계속해서 터졌다. 견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그 첫 번째 만남의 성사는 기업은행에 달렸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연초 취임하면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을 포함한 노사공동합의문을 수용했다. 사실상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노사 간 의견 교환이 중요하다. 새로운 만남을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노조추천이사제와의 만남이 우리나라 기업경영에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여 선진금융이라는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쇄인 김상우 | 편집인 김상철 | 주필 추창근 | 편집국장 김종훈

논설실	(02)799-2669	정치경제부	(02)799-2663	사회경제부	(02)799-2612	국제경제부	(02)799-6741
자본시장부	(02)799-2648	금융부	(02)799-2665	부동산부	(02)799-2637	산업부	(02)799-2644
IT중소기업부	(02)799-2646	유통바이오부	(02)799-2641	뉴스랩부	(02)799-2664	사진팀	(02)799-6745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주소 06900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이슈&인물 한국산업연합포럼 출범 정만기 초대 회장

"산업계 현안 공론화·지식 축적 목표"

산업계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 업계에 파급력이 큰 법안을 연이어 추진 중이다.

이런 상황 속에 산업계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창구를 자처한 단체가 새로 만들어졌다. 바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다. 지난달 13일 출범한 KIAF는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을 초대 회장에 선출하고 곧바로 활동에 돌입했다. 포럼을 열어 산업계 현안을 논의했고 정부, 국회와 만나 업계의 입장도 전달했다. 바쁜 한 달을 보낸 정만기 초대 회장을 23일 서울 서초구 KAMA 사무실에서 만났다.

지난달 출범한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정만기 초대 회장은 "KIAF는 경제단체가 아니다"라고 수차례 강조하며 포럼의 성격에 대해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으고, 투명하게 여론을 형성하며 지식을 창출하자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업종별 협회만으론 대응 한계
정책결정 과정 '공동의 목소리'
8개 단체 시작, 한 달 새 15개로

기업 이익 옹호 '경제단체' 아냐
여러 지혜 모아 여론 형성하고
팩트 중심 지식 발견·전파 역할

최근 공정거래·상법 개정 이슈
문제점 제기하며 정치권 설득
헤리티지 같은 '싱크탱크' 지향

업종별 한계…산업군 포괄할 단체 필요

"과거와 달리 다양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할 이슈가 많아졌습니다. 개별 협회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정 회장은 복잡해진 정책 결정 과정이 산업계의 KIAF 설립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정책 결정에 당국자 한두 사람의 판단만이 작용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생각과 동의가 필요해졌다는 뜻이다. 공정3법을 논할 때도 정부, 여당과 야당, 기업, 시민단체 등 여러 당사자의 의견이 오가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견을 조율하고 설득할 대상이 늘어난 만큼, 다수 협회의 목소리를 대변할 광범위한 단체가 필요해진 것이다.

정 회장은 "규모가 큰 경제 이슈, 산업별 특수한 문제도 개별 협회가 목소리 내는 방식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라며 "이런 필요성 때문에 KIAF에 업계의 호응이 있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했다.

실제로 KIAF에 동참하는 산업계 단체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자동차·기계·바이오·섬유·엔지니어링·전지·철강·중견기업 등 8개 단체로 시작한 KIAF는 회원사가 한 달 만에 15개로 늘었다. 백화점·체인스토어·디스플레이·반도체·전자정보·석유화학·조선플랜트 협회가 추가로 합류했고, 건설협회도 가입을 앞두고 있다.

이들이 갑자기 뜻을 같이한 건 아니다. 26개 업종별 단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산업계 공동 사안을 해결하고 해법을 논하기 위해 매월 포럼을 열어왔다. 시간을 거듭할수록 조사와 정책건의를 더 공식적, 체계적으로 추진해보자는 의견이 모이며 KIAF 창립으로 이어졌다.

'객관성' 바탕으로 지식 모으는 연합체

정 회장은 KIAF가 경제단체가 아님을 수차례 강조했다. 이름에서 드러나듯 '포럼을 통해 여론을 형성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연합체'가 KIAF의 정체성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경제 5단체(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하지만, 과하게 대기업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정 회장은 기존 경제단체가 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에만 머무른 결과라고 진단했다. 그는 "어떤 이슈를 제기할 때 결론만 주목받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왜 문제가 있는지'가 아니라 '반대 성명을 냈다'라는 식의 결론 위주로 논의가 진행됐는데, 이는 다른 입장을 가진 이들을 결코 설득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객관성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문제를 진단하고 이유를 제시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산업계의 목소리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KIAF의 역할도 정확한 현안 진단과 지식 축적에 맞춰져 있다. 정 회장은 "KIAF가 추구하는 목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라며 "많은 사람의 지혜를 모으고, 투명하게 여론을 형성하며 지식을 창출하자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면 답은 나오게 돼 있다. KIAF는 팩트(fact) 위주로 지식을 발견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맡고 싶다"라고도 했다.

객관적인 조사·논리로 상대방 설득

KIAF는 객관적인 조사와 논리를 통해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도입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9월 개최된 5회 산업 발전포럼은 공정거래법·상법 개정안 이슈를 다뤘다. 포럼에서는 지난해 현대차 주주총회에서 경쟁 기업 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한 엘리엇 펀드가 예시로 언급되며,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대주주 의결권이 3%로 제한되면 이와 같은 일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시됐다. 특히, 이를 두고 "적군이 아군 작전회의에 참석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정 회장의 발언은 크게 회자되며 이슈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정 회장은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관해서도 정치권과 대화를 해봤다"라며 "모두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보완할 생각도 갖고 있어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어 "팩트를 바탕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강조하기도 했다.

졸속법안 등 입법문화 개선도 나설 것

정 회장은 공정경제 3법 등 현안 이외에 주목하고 있는 이슈로 입법 문화 개선을 꼽았다. 국회의원들이 지나치게 발의 건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는데, 많은 입법이 아니라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드는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25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제출된 법안은 5778개에 달한다. 21대 국회의 법안 접수가 시작된 6월 1일 이후 178일 만의 기록이다. 하루 평균 32건의 법안이 발의된 셈이다.

정부가 의원을 통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정부가 직접 입법을 하려면 법제처 심사, 공청회, 차관 회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의원을 거쳐 우회 입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졸속 법안이 속출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정 회장은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 쏟아지면 기업은 대응하기가 어렵다. 이런 관행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KIAF를 미국 헤리티지재단 같은 산업계의 싱크탱크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매월 꾸준히 포럼을 개최하며 새로운 원천 지식을 쌓아갈 계획이다. 나아가 기업과 국가의 경제연구소와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객관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팩트와 객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만 대변하다 보면 팩트를 말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양치기 소년이 돼 버리는 거죠. KIAF는 포럼에 금속노조 관계자도 항상 모시고 있습니다. 양쪽의 의견을 모두 듣고 공론화하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유창욱 기자 woogi@

사설

올해 -1.1% 성장 전망, 더 후퇴할 우려 크다

한국은행이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0.5%로 유지키로 했다. 5월말 0.75%에서 0.5%로 내린 후 7월과 8월, 10월에 이어 네 번째 동결이다.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고 금리가 실효하한에 이른 상황에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따른 판단이다.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면서 앞으로도 당분간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또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1%로 내다봤다. 지난 8월의 전망치(-1.3%)보다 0.2%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경제 충격으로 1분기 -1.3%, 2분기 -3.2%로 추락했던 전분기 대비 GDP 성장률이 3분기에 1.9%로 호전되자 전망치를 소폭 높였다. 그러나 올해 마이너스 성장은 오일쇼크가 닥쳤던 1980년의 -1.6%, 외환위기 때인 1998년 -5.1% 이후 22년 만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9년 한은은 -1.6%를 예상했으나, 실제 성장률은 0.2% 플러스를 달성했다.

올해 -1.1% 성장률마저 불안하다. 3분기부터 국내외 경제가 개선되는 분위기를 타기는 했다. 수출이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0.3%까지 감소했다가, 3분기 -3.3%로 하락폭을 줄였다. 투자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다. 기업체감경기 또한 호전됐다. 한은이 전날 발표한 1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산업 업황실적이 78로 한 달 전보다 4P 올랐다. 12월 업황을 내다본 전망BSI도 76으로 4P 높아졌다. 경기심리가 회복되고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최대 악재다. 진정되나 했던 코로나19가 다시 무섭게 번지고 있다. 3차 유행이 본격화하면서 하루 확진자가 26일 600명에 근접하는 등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8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보다 더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온다. 당분간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도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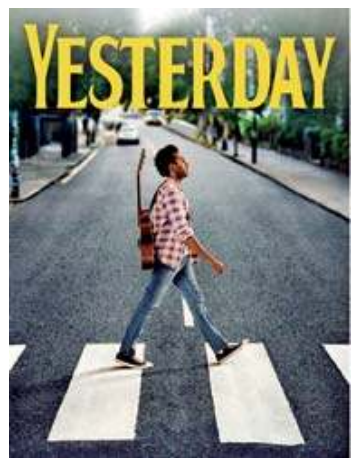
경제활동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해외의 코로나 확산세도 악화하는 상태이고 보면, 수출 호조를 장담하기 어렵다. 소비에 결정적인 타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고, 지금의 경기 흐름을 회복세로 볼 수 없다"며, 최근 코로나19의 3차 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은 8~9월의 2차 확산 때보다 더 클 것으로 우려했다.

비상한 위기에서 비상한 경제정책 운용이 요구된다. 거시 변수를 통한 전망 자체가 의미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다. 올해 마이너스 성장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일자리 감소는 이미 구조화하고 있고, 소득도 뒷걸음질하면서 경제가 후퇴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주체는 결국 기업이다.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영화로 보는 세상

기분 좋은 상상에 빠져보자 '예스터데이'

요즘 한 달에 수십억도 번다는 인기직업은 웹툰, 웹소설 작가다. 만화도 소설도 모바일 세상에서 구독되고 있다. 전철이나 버스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 웹툰이나 웹소설을 보며 무료함을 달래는 모습은 흔하게 볼 수 있다. 필자도 이쪽 세계에 잠깐 맛을 본 적이 있다. 웹툰의 스토리작가를 하면서 몇 년간은 그걸로 밥벌이를 하였고 웹소설을 써서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대중의 기호를 살피기도 했으니까 말이다.



만약에 지금 회사를 관두고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얼까 생각해보니 웹툰 스토리작가를 다시 시작하거나 본격적으로 웹소설 시장에 뛰어들어 소설을 한 번 써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려면 공부, 연구해야 한다. 그래서 빅히트한 작품의 공통점을 살펴봤다. 혹여라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잘 들어보시라. 일단 평범한, 아니 평범하다 못해 찌질한 주인공이 등장한다. 독자와 동병상련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찌질이가 하루아침에 재벌 2세가 되거나(계급 상승), 혹은 죽었던 몸이 환생하여 어느 왕국의 왕자님으로 탄생(빙의)하거나, 아니면 과거로 돌아가 지금의 지식과 무기를 가지고 일약 영웅이 된다든지 하는 다소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비슷하게 전개된다. 현실을 잊게 하고 대리만족을 극대화하는 판타지 장르가 이 바닥에선 대세이자 대박의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콘셉트를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 제작도 한창인데 우리에게 웰메이드의 전형으로 알려진 두 작가와 감독이 판타지 장르의 영화를 내놓아 눈길을 끌었다. '브리짓 존스의 일기' '러브 액츄얼리' '노팅힐'을 썼던 영국 최고의 작가 리챠드 커티스와 감각적 영상으로 유명한 대니 보일 감독이 의기투합하여 만든 영화 '예스터데이'다.

아무리 해도 히트를 내지 못하던 무명 뮤지션 잭(히메쉬 파텔)은 결국 세상을 등질 결심을 한다. 바로 그때 온 세상이 정전되고 그 여파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비틀즈'와 그들의 음악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대신 비틀즈의 빛나는 명곡들은 오직 잭만이 기억하게 된다. '예스터데이'를 연주해봐도 '렛잇비'를 불러봐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처음 들어본 음악이란다. 천재일우의 기회임을 안 잭은 비틀즈의 노래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다는 내용인데, 신선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나에게도 이런 비슷한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 하며 잠시 기분 좋은 상상에 빠져보는 오후다. 박준영 크로스컬처 대표

유네스코 세계유산 창덕궁을
누구든 보고, 어디서든 느낄 수 있도록
복잡한 궁 안을 헤매지 않게
AR 가이드가 경사로를 먼저 찾아주고,
출입이 금지된 곳도 막힘 없이 볼 수 있게
AR 공간을 눈앞에 펼쳐줍니다
그렇게 우리 앞의 작은 벽 하나씩을 넘어
이제 거리라는 큰 벽까지 함께 넘으려 합니다
세계 어디서든 볼 수 있는 AR투어앱
[창덕ARirang at Home]
한 명 한 명을 위한
모두의 AR 창덕궁이 마침내 열렸습니다
당신의 소 시대를 만듭니다
仁政殿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다운로드하기 ONE store
지금 어디서나 창덕궁을 체험할 수 있는 '창덕ARirang at Home'을 다운로드 하세요
SK telecom